



[뉴스] 연말 대목인데 자영업 '비명' 주류업계 '한숨' 02



Economy

코스피	2617.76 (+15.17)	코스닥	872.10 (-1.19)
금리 (미국 3년)	0.963 (+0.008)	환율 (원/달러)	1112.70 (+2.30) (24일)



코스피가 24일 이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7포인트 (0.58%)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外人 2주새 7조 매수 주가 3000시대 '견인'

코스피 새 지평

〈上〉 2600선 시대, 배경은

외국인 14일 연속 매수 행진 바이든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백신 개발 등 투자심리 개선

전일 최고가 넘어 2617 마감 내년 3000선 장밋빛 전망도

코스피지수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8년 1월 29일에 세운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 2598.19를 넘어 '코스피 2600시대'를 열었다. 내년에는 3000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24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15.17포인트 (0.58%) 상승한 2617.76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돌아온 외국인은 이날 72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최근 14거래일 동안 코스피시장에서만 7조921억원어치나 샀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변수

올해 세계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국외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고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3월 19일 코스피는 1457.64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당시 코스피 대표주 삼성전자의 종가는 4만2950원이었다.

역사상 국내 증시의 수급은 대부분 외국인이 주도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공식이 깨져버렸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증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들은 '동학개미운동'을 자처하며 코스피 대형주와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는 언택트주(Untact·비대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폭락했던 지난 3월 동학개미는 무려 11조 1900억원을 순매수해 낙폭이 컸던 종목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동학개미'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미국은 로빈후드, 일본은 닌자개미, 중국에서는 인민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각국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증시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고와 투자자예탁금,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여전히 풍부한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CMA 잔고는 64억7009억원, 투자자예탁금은 62억9947억원에 달한다. 특히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10조원이 넘게 늘었다. 30조원에 불과했던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이다. 신용거래용자잔고는 17조38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보다 8조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난 개인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 원화 강세에 돌아온 외인

미국 대선 이후 11월 들어 수급 흐름이 바뀌고 있다. 외국인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를 2600선으로 이끌었다. 동학개미가 주도하던 장세를 '돌아온 외국인'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동안 7조92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조393억원, 기관은 1조8464억원을 순매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이 미 대선 승리 선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해 불복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미 증시 마감 후 바이든에 정권 이양을 협력하겠다고 발표해 패배를 인정했다"며 "시장이 우려했던 불복 장기화에 따른 정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1상 돌입

'NBP2001' 임상1상 IND 최종 승인 아스트레제네카 백신 최대 90%효과

SK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에 돌입함과 동시에, 이 회사가 위탁생산할 아스트레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90% 이상의 예방률을 달성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백신 확보와 내년 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 바이러스 방어능력 확인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NBP2001'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비임상 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확보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I

ND 승인에 따라 즉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NBP2001의 영장류 대상 효력 시험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보다 약 10배 높은 중화항체를 유도했다.

또 영장류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투여한 결과 위약을 투여한 시험군에선 100% 감염이 일어난 반면 NBP2001을 통해 중화항체가 유도된 시험군에선 기도와 폐 등 호흡기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는 방어능력을 확인했다. 또 동물효력시험에서 면역원성과 중화항체 생성능력,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어능력을 검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임상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빠르게 임상1상을 시작하고 즉시 후속 임상시험 준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임상1상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체내 안전성과 함께 면역원성을 집중 평가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BP2001이 단백질 배양과 정제 과정을 거쳐 안정화된 합성항원백신이란 점에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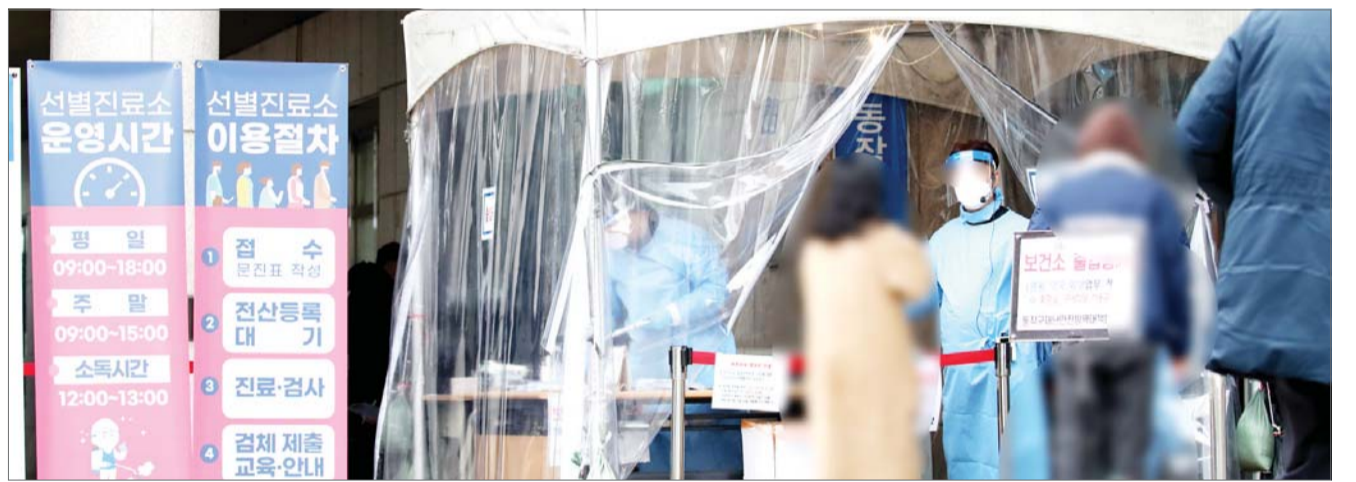
◆ 아스트레제네카 백신 공급 '기대'

아스트레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스트레제네카는 이날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평균 예방 효과가 70%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스트레제네카는 첫 번째는 백신 1회분의 절반 용량만, 두 번째는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할 경우 예방 효과는 90%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서울 지난주 코로나 양성률 '역대 최고'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건수)이 지난주(11월 15~21일)에 4.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24일 밝혔다. 기존 최고 기록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오던 8월 16~22일의 4.55%였다.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건수)이 지난주(11월 15~21일)에 4.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24일 밝혔다. 기존 최고 기록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오던 8월 16~22일의 4.55%였다.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오늘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 개최 충격적 진화... AI·빅데이터 미래 한눈에

올해 AI언어모델 GPT-3 개발에 완전무인 자율차까지 진화 속도

2016년 서울에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이 열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후, 올해 또 다시 인공지능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알파고 이후 '세계 최고의 AI'로 평가되는 언어처리 모델 'GPT-3'가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시점이 더 빨리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안겼을 정도다. GPT-3는 이미 여러 테스트에서 사람의 인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 AI가 얼마나 진화할 수 있는지 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결국은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AI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조종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19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GPT-3는 놀라우리만큼 문장 생성을 잘 하고 사용자 질문에 그럴듯한 답을 하는데, 이는 과거의 문장을 학습해 바로 다음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아내는 방식"이라며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에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라고 반문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답을 찾는 한계를 보여준

다"고 평가했다. 또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웨이모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한 것은 당초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진전을 보여줬다.

(L7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연말 송년회 대목인데... 자영업 '비명', 주류업계 '한숨'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비상' 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일반식당도 저녁 술 판매 불가능

주류 판매량 지난해 반토막 전망 업계 "현실적 대책 마련" 목소리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재시행되면서 외식·주류업계에 준비가 걸렸다.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된 터라 매출 직격탄이 예상된다. 통상 연말에는 유흥용 주류 매출이 20~30%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단되고 음식점 내 취식 가능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주류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악의 경우 주류 판매량이 12월에 성수기 효과를 넘어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는 이번 성수기를 놓칠 경우 올 상반기 중 납부한

400억원 안팎의 법인세 과징금을 상쇄하기 어려워지면서 2년 연속 순이익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맥주 '테라'와 소주 '진로이즈백'을 출시한 하이트진로도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출시 초기 대규모 마케팅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외형성장기회를 놓치고 있다. 올 3분기 가정용을 중심으로 깜짝 흑자를 낸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도 연말 마케팅을 통해 흑자규모 확대를 기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반등세 유지가 어려워졌다.

주류업계는 이번 성수기를 놓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구조를 변화하고 있다. 유흥시장항 비용을 줄이고, 가정용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부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코로나가 장기화하더라도 순이익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수익구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 하지만 결국 시장 파이가 작아지는 결과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주류업계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외식업계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에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되는 일반식당의 경우 저녁 주

류 판매를 할 수 없다. 주류판매는 객단가가 높아 일반 식당의 주요 수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수입원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배달로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배달의 경우 가게에서보다 주류소비가 현저히 적어 매출 손실을 매꾸기엔 부족하다.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이미 정부 대출금 지원, 등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상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6조원으로 한 달 새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이기에 거리두기 격상에는 동의하지만, 송년회 등 연말 회식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다른 시기에 비해 더 클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한국의 인공태양 '케이스타'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케이스타'(KSTAR) 주장치. 케이스타는 땅 위에서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케이스타가 핵융합 발전 최적 온도인 섭씨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동안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 속 보험사 실적 선방... 누적 순익 ↑

9월까지 순익 5.5조... 6.1% 증가 생보사, 저축성보험이 실적 견인 손보사, 화재 손실폭 둔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보험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이 효자노릇을 했고, 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로 자동차·장기보험 손실이 감소한 덕을 봤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1~9월 당기순이익은 5조5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5억원(6.1%) 증가했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15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6억원(3.1%)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저축성보험의 영업실적이 좋아 보험영업손실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9억원(10.2%) 증가했다.

구분	'19.1~9월	'20.1~9월	증감률	
생보사	당기순이익	30,569	31,515	3.1
	보험영업익	▲180,458	▲176,375	손실 축소
	투자영업익	186,677	185,693	▲0.5
	영업외이익	33,621	31,259	▲7.0
손보사	당기순이익	21,983	24,232	10.2
	보험영업익	▲37,253	▲31,825	손실 축소
	투자영업익	67,452	66,040	▲2.1
	영업외이익	▲538	▲1,071	손실 확대
합계	52,552	55,747	6.1	

/금융감독원

손보사 역시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나 병원진료가 감소하면서 보험영업손실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52조4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975억원(5.0%)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59%로 전년 동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47%로 전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1291조6306억원으로 전년 동월 말 대비 68조

238억원(5.6%)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영업여건 및 투자환경 약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 수익성, 재무건전성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과 과도한 영업경쟁, 대체투자자산 부실화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IFRS 17 도입 대비 및 변동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자본충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직장인 올해 평균 49일 재택근무 했다

인크루트 직장인 설문

재택근무 일수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10명 중 9명 "이번 달에도 적용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선제적 재택근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직장인 74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3차 대유행 확산일로에 회사측 선제적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재택근무 진행 실태 조사에서 '재직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 및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는지' 묻은 결과 이에 '그렇다'(55.1%)와 '아니다'(44.9%)로 확인됐다.

기업의 재택근무 실시노력에 대해 절반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82.1%로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63.4%)과 중소기업(43.8%)로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실시비율이 대기업의 절반에 그친 것.

업종별로는 ▲여행·숙박·항공(80.0%) ▲모바일·게임(75.0%) ▲인터넷·IT·통신(67.7%) 순으로 재택 실시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건설·건축·토목·환경(33.9%) ▲제조·생산(39.4%) ▲의료·간호·보건·복지(47.3%) 업종 재직자들은 회사의 재택근무 실시에 낮은 점수를 줬다.

응답자가운데 실제 올해 재택근무 경험에 있는 비율은 53.9%였고, 이들이 올해 집에서 근무한 날은 평균 49.1일로 집계됐다. 기업별 재택근무 일수로는 ▲대기업 62.3일 ▲중견기업 55.7일 ▲중소기업 50.2일로 각각 파악됐다.

한편, 이달 중으로라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88.3%는 찬성했다. 24일 0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다. 설문시점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회사의 선제적 대응을 바라고 나섰던 것.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의 조짐에 직장인 대부분은 출퇴근 및 사무실 근무 등 대면활동에 우려를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현진 기자 ihj@

백신 개발 완료시 즉시 대량생산 가능

>> 1면 'SK바이오사이언스'서 계속

안동 L하우스 공장 세계 최고 수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 아스트레제네카가 임상3상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원액과 완제에 대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와 3자 협약을 맺으며 국내 공급에 협력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복지부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원할

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도 백신이 개발 완료되는 즉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는 "글로벌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백신보다 다소 늦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법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아래 성공 가능성을 차츰 높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금리인하요구권 안알리면 보험사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된 반면 보험법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 이사 등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나유리 기자 yu115@

한진 “인수 무산땀 면허취소 사태까지… KCGI가 책임져야”

항공업계 빅딜 X

(中) 인수 최대 분기점

가처분 신청 오늘 첫 심문
한진 “3자배정 유증 적법
KCGI 주장은 명백한 거짓”
내달 1일전 결과 나올 듯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남은 가운데, 그 첫 고비를 목전에 두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내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은은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5000억원)와 교환 사채 인수(3000억원) 등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KCGI가 산은의 한진칼 투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제기한 것이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반박에 다시 재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4일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이날 낸 입장자료와 관련해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 연말까지 아시아나의 자본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투자 합의서 내용은 항공 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감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산은은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산은은 건전한 감시를 통해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데 이번 투자의 목적이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은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아시아나 대산대 한항공의 유상증자 관련 “대한항공은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가 독립된 회사로 유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증자대금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후 심사과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도 한진칼에 대한 8000억원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규모 비교

KOREAN AIR		ASIANA AIRLINES		주요 경영지표	
1969년 3월 창립	2020년 6월 직원수	1988년 2월 창립	2020년 10월 항공기 보유	자산 (20년 6월)	별도 매출 (19년)
18,681명	9,079명	25.43조원	12.29	부채 (20년 6월)	-23.09
164대 (여객기 141·화물기 23)	79대 (여객기 67·화물기 12)	12.03조원	6.97	아시아나항공 부채 (20년 6월)	-11.55
110개 중 33개	현재 국제선 운항 노선	100개 중 26개	22.9%	2019년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	19.3%
스카이팀 (2000년 출범)	글로벌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2003년 가입)			

연합뉴스

투자는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KCGI·조원태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과 대립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게 아니라 재차 강조한 것.

산은은 이번 인수방안의 경우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1조8000억원을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아시아나의 3자 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에는 한진칼도 참여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총 8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한다.

산은은 “이번 항공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갖는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 안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행이 한진칼에 직접 주주로 참여해 구조개편 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산업 재편에는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함께 산하 저비용항공사(LCC)와 지상조업사 등 관련 자회사 기능 재편도 포함돼 있어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산은 설명이다.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2곳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올해에만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다채권자로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며 “국내 항공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해 관련 회사의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의 가치 제고와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산은은 “어떠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비난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히 대처해 이번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건전 및 윤리경영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5G 전략산업 본격 육성”... ‘5G+ 실무위’ 개최

민·관 합동 실무위 영상회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민·관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5대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를 24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가적인 협력을 통한 ‘5G+ 전략’의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2개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 민간위원 19명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와 함께 통신사·제조사 임원, 5G+ 전략산업 분야별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도 참여한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21년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주요 전략산업별 추진성과 점검과 내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KEPCO

슬기로운 블프 구매 체크요소는... 통관 배송 세금

〈블랙프라이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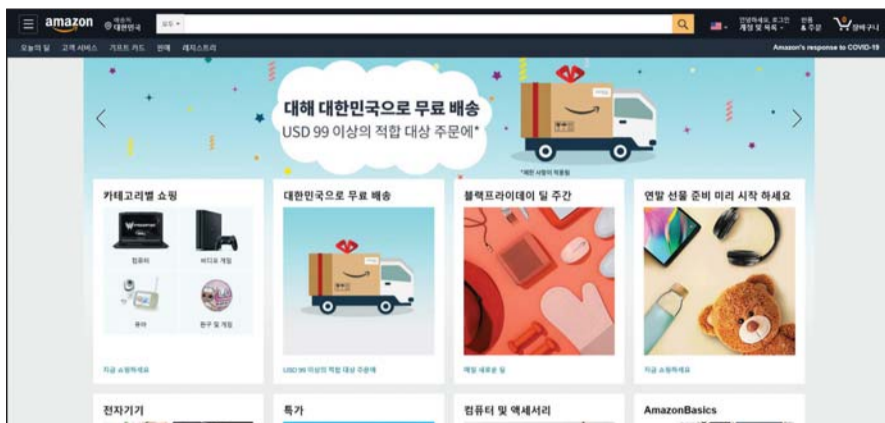
27일 자정부터 美 블프 행사
개인통관고유부호 미리 준비
배송방식 직접·대행 여부 확인
소비세에 따라 세금·배송비 차이

‘아이패드를 살까, 다이슨 청소기를 주문할까, 폴로 코트를 구매할까.’
글로벌 최대 쇼핑 축제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길이 막히고, 해외쇼핑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직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블랙프라이데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 소비자들 많은 모습이다.

업계에선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액이 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해외 직구액은 3·4분기까지 2조85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369억원)보다 8.2%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4·4분기엔 중국의 ‘11·11 쇼핑 축제’(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블프) 등이 몰려들어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직구액 4조’ 돌파는 무난할 전망이다. 지난해엔 3조6356억원이었다.



아마존 홈페이지

24일 해외 직구 플랫폼 몰테일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코리아센터의 도움을 받아 올해 블프 쇼핑 요령을 정리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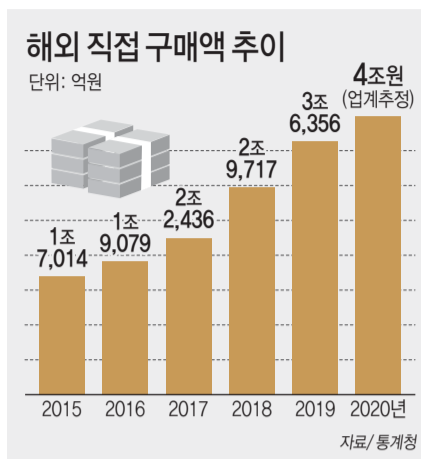
‘2020 블프’는 오는 27일 자정(현지 시간)부터 본격 시작한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뉴욕이 있는 동부시간으로 계산하면 자정이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이 있는 서부 지역 자정은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5시부터다. 이날 시작한 블프는 사이먼데이인 30일 월요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선 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앞서 받아놓은 번호가 있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기존 통관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블프에 아마존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쇼핑몰 회원가입은 필수다.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몰테일 분석 결과 지난해 블프 기간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이트는 아마존(30%)이었고, 폴로(28%), 갭(5%), 이베이(4%), 락포트(2.5%)가 뒤를 이었다. 다이슨, 비타트라 등도 2%대를 기록하며 많이 찾았다. 회원 가입을 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 별로 ‘핫딜’ 등 가격이 싼 제품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한다.

해당 쇼핑몰이 한국까지 직접 배송하는 제품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매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대행지(배대지) 주소를 입력해야 한



다. 몰테일과 같은 플랫폼들이 배송대행을 비롯해 구매대행 그리고 일부 제품 직접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몰테일만해도 미국 뉴저지, 캘리포니아, 델라웨어에 별도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직구 제품들을 한국으로 배송하고 있다.

특히 몰테일의 경우 현지에서 고객 제품을 수령해 한국으로 보내기전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자 제품이 국경을 넘어 소비자 손에 닿는 일을 사전에 막고 있다. 물론 배송대행 플랫폼 역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고, 물류센터 사서함 주소를 받아야 한다.

아마존 고객이 몰테일 앱을 이용하면 배송대행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돼 유택

신 편리하다. 몰테일의 경우 ‘다해줍’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만 남기면 구입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배대지가 어디냐에 따라 세금과 배송비도 차이가 있다.

코리아센터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피별로 차이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대다수의 식료품에 소비세가 붙지 않아 관련 제품이나 부피가 큰 장난감 등을 보낼 때 유리하고, 델라웨어의 경우 모든 품목이 면세다. 또 뉴저지는 신발, 의류에 대해서도 세금이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들어올 때 세금도 신경써야 한다. 미국에서 온 제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 미국 외의 나라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블프 인기 카테고리엔 전자제품이 단연 1위를 차지했고 의류·언더웨어, 신발·가방·잡화, 완구, 기타(비타민·생활용품 등)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소형가전, 컴퓨터, TV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자 제품을 비롯해 의류, 그리고 코로나19 특수 상황에 따라 캠핑족을 위한 관련 용품, 영양제 등이 큰 인기를 누릴 것이라 관측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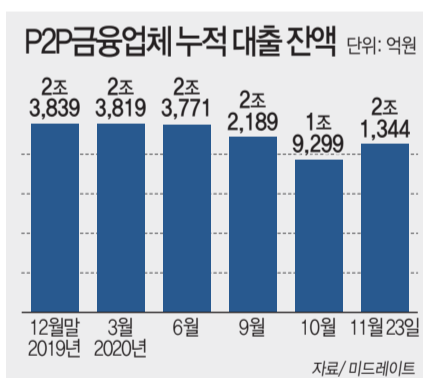
P2P업체, 정식등록 신청부터 빠듯

연체·폐업 등 업계 신뢰 바닥... 사전면담 장기화

129개사 대출 잔액 2조 1345억
10월에는 2조원대까지도 무너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의 정식 등록 신청 전 단계인 ‘사전면담’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연내 정식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체·폐업 등으로 업계의 신뢰가 저하된 것은 물론 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 인력감축에 나선 업체도 등장했다.

24일 P2P금융업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P2P금융업체 129개사의 대출 잔액 합계는 2조 1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2조3839억원을 기록한 이후 약 10.47% 감소한 수치다. P2P업계의 대출잔액은 연초부터 8월까지 2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을 기점으로 2조2189억원으로 하락한 이후 10월에는 1조9299억원까지 하락

하면서 2조원대가 무너졌다. 이후 소폭 반등을 기록했지만 투자심리가 지난해 말보다 얼어 붙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내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연내에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정식 P2P업체 등록에 앞서 8퍼센트, 렌딩, 데일리렌딩 등을 포함한 12개 업체를 선정해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11월 사전검토를 마무리한 뒤 연내로 첫 정식 업체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식 P2P업체 등록은 처음이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정식 등록까지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긴축재정을 통한 내실 다지기를 진행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테라펀딩은 최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이 140명에 달했던 인력을 77명까지 줄였다. 지난 10월에는 20%가 넘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체 채권 회수에 집중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 축소 발표를 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정식 등록을 신청한 이후로도 2개월 가량의 과정을 앞둔 가운데 연내 정식 등록 업체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그럼에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오면서 제도권에 안착하면 P2P업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블록체인-신용결제 접목 일본서 거래시스템 특허

신한카드가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에 대해 국내에 이어 일본 특허까지 등록에 성공했다.

신한카드는 24일 업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접목시킨 기술 특허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지난해 7월 국내 특허 취득에 이어, 일본 특허청을 통해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페이관 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VAN사나 PG사 없이 앱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장치의 결제에 적용할 수 있다.

유대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국내외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산업부, AI활용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가동

2020 세라믹의 날 행사 개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라믹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서비스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라믹 산업 제조혁신을 위한 ‘2020 세라믹의 날&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은 세라믹기업이나 개발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격

으로 접속해 제품 스펙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료, 생산공정 등 최적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제품 불량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2019~2021년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키로 하고, 최근 1단계 개발을 완료 앞박버전을 오픈했다. 플랫폼은 소량, 다품종 생산인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

를 분석·공유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시연회,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웹세미나도 진행됐다. 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미코세라믹스, 삼화콘텐서, 아모텍 등 23개 세라믹기업은 이날 원료와 공정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동 활용할 것을 약속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해 국내 세라믹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며 세라믹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세라믹 산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경험 풍부한 금융 말형’ P코로나 시대, 혁신 최적임자

**새 은행연합회장에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단독후보 추대... 27일 사원총회 빅테크 금융권 진입 대응 ‘우선 과제’ 금융당국-은행 관계회복 가교역할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추대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테크와의 경쟁, 고객신뢰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민(民)·관(官) 경험이 풍부한 김 회장이 최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열고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한다.

김 회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정책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했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다. 이번 인선에서는 김 회장이 현재 NH농협금융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은행권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업계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NH농협 금융을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이끌었다는 것이 내·외부의 평가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또 내실성과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협금융의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빅테크의 금융권 진입 대응이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경쟁질서 확립과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금

융협의회를 출범했다. NH농협금융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간 관계회복을 위한 가교역할도 해야 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잇단 부실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은행장에게도 동일한 방향의 징계를 내릴 경우 현직 은행장이 문책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 절차에 개입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판매절차 등을 고려한 은행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

업에 대한 은행권 자율 배상도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10개은행으로 구성된 은행협의체에 피해기업 배상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논의를 이끌만한 은행이 나오지 않자 다른 은행도 명확하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관계나 고객 신뢰를 고려할 때 김 회장의 가교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당국과 조율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은 해당금액을 거래금액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펀드 판매 수수료는 투자금의 1~2% 수준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200억원이다. 이 경우 거래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감당하는 금액이 수익에 비해 과하게 책정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경우 각종 유예제도가 사라져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김 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銀, 미래형 혁신점포 오픈

영업점 직원 대면 수준의 화상상담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화상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인 ‘디지털택트 브랜치’를 서소문 지점에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택트는 디지털과 컨택트(Contact)의 합성어다. 디지털택트 브랜치는 고객이 화상상담 창구에서 화상상담 전문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의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이다.

화상상담 부스 내에 대형 스크린과 화상상담용 카메라, 키패드,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 신분증 및 인감 스캐너 등이 설치돼 있어 각종 상담 자료들을 보면서 실명확인부터 업무 완결까지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디지털택트 브랜치는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고객중심 영업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2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든 설치할 수



신한은행 디지털택트 브랜치 상담 모습.

있다.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소속의 화상상담 전문 직원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신해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택트 브랜치를 통해 고객과 금융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서소문 지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소형점포 및 무인화점포 등 다양한 채널에서 디지털택트 브랜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능 업무의 범위도 현재 예적금 신규, 대출 상담에서 점차 넓혀 ‘시간과 장소, 업무를 불문하고 연결 가능한 고객 친화 채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銀, 마카롱택시 7000원 할인이벤트

마카롱택시앱서 결제시 최대 혜택

하나은행이 마카롱 택시요금 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케이에스티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원큐’ 앱 신규 등록 손님 ▲마카롱 택시 기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음달 15일까지 새로운 ‘하나

원큐’ 앱 신규 등록 손님에게 마카롱 택시 2000원 할인쿠폰 및 마카롱 캐시 5000원을 제공한다. 손님은 마카롱택시 앱에서 요금 결제 시 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달 11일까지 개인택시 기사님이 마카롱 택시기사용 앱을 통해 매 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할 경우 PG수수료를 3개월 면제하고 하나머니 1만머니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크로스비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

- 모집접수** 2020. 11. 17. ~
- 모집대상**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가능 (토달 3년 사용가능)
- 입주기업 지원사항**
 - ◆ 사무공간, 무료 제공, 회의실, 접견실, 복사기, 인터넷, 팩스 등 지원
 - ◆ 마케팅·경영지원(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록 등 지원)
 - ◆ 경영, 법무, 세무, 노무, 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상담방법** 전화 후 센터방문 상담

문의처 크로스비즈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051-818-0211

알뜰폰 성장 불붙인 '아이폰12'... 자급제 꿀조합에 가입 ↑

알뜰폰, 비싼 5G 요금제 대안 각광
아이폰12 출시 첫날 약 10만대 개통
파손 보험료 지원 등 유입마케팅 적극

애플의 첫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출시 이후 알뜰폰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아이폰의 경우 자급제 선호도도 높고, 비싼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대안으로 알뜰폰 LTE 요금제를 택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서다.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일반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는 편의점 등의 일반 유통매장에서 유심(USIM)을 산 후 단말에 끼우기만 하면 된다.

2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10월 30일 아이폰12 출시에 이어 지난 20일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가 국내에 출시됐다.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는 국내에서 약 50만대의 예약 판매를 기록하고, 출시 첫날 약 10만대 수준의 개통량을 기록한 것으로



모델이 '아이폰12' 자급제 고객을 대상으로 2년간 단말 파손 보험료를 지원하는 'M케어'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엠모바일

전해졌다.

아이폰12 미니와 프로맥스도 다른 아이폰12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보다 25%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별로 최대 24만원에 머문다.

이에 따라 아이폰12가 정식 출시된 10월 30일 이후 주요 알뜰폰 업체들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급제로 아이폰12시리즈를 구매하고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어 통신비 절약을 노리

는 이용자들 비중이 높아진 것. LTE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실제 알뜰폰 사업자 KT엠모바일에 따르면 10월 30일 아이폰12 출시 이후 지난 21일까지 고용량 요금제 3종의 일평균 신규 가입자가 지난달 일평균 대비 약 47% 늘었다. KT엠모바일이 선보인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 3종은 아이폰 24개월 파손 보험 지원 요금제다.

KT엠모바일은 아이폰12 자급제 구매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파손 단



모델이 누적가입자 60만명 돌파 소식을 알리고 있다. /미디어로그

말 보험료 전액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M케어' 프로모션을 열며, 아이폰 가입자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T엠모바일은 이번 이벤트의 호응으로 프로모션을 연장하기로 했다.

'U+알뜰모바일' 또한 아이폰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아이폰12 이용자 잡기에 나섰다.

미디어로그 측은 "U+알뜰모바일은 지난 21일 기준 누적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7월 알뜰폰 사업 시작 이후 6년 만이다. 그

간 네이버, 쿠팡, GS24 등과 제휴해 온·오프라인 판매 접점을 확대하고, 셀프 개통 서비스 등 편의성을 개선해 입소문을 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자급제폰 활성화와 유심 요금제 수요가 이 같은 알뜰폰 가입자 성장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장에 불을 붙인 것은 아이폰12 시리즈 출시다. 애초 아이폰의 경우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는 마니아층이 많아 알뜰폰 수요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간 알뜰폰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돼 오던 파손 보험 등 서비스 부재 또한 파손 보험 전용 상품을 내놓고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등 보완해 신규 가입자들이 발길을 끌고 있다는 해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특히 '아이폰12 미니'의 경우 조금 더 저가형 모델이 다 보니 판매 호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아이폰12 시리즈는 특히 마케팅 효과가 높아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홍보 효과에도 높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월평균 사용자 3000만명... 발신량 290억건...

9돌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생태계 성장 기여"

누적 구매자 수, 국민 절반에 가까워
작가 수익확대... 창작자와 동반성장

카카오톡이 이모티콘 출시 9주년을 맞아 올 한해 성과와 트렌드를 인포그래픽으로 24일 공개했다.

◆역대 누적 매출 이모티콘 1300개

출시 9주년을 맞이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지난 2011년 11월 카카오톡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이용자들의 대화 환경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모바일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9년간 이모티콘을 구매한 누적 구매자 수는 24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월평균 이모티콘 사용자 수는 3000만명, 총 발신량은 290억건을 기록했다.

이모티콘 생태계의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 온 카카오톡의 노력은 이모티콘 작가들의 수익 확대로 연결되며 플랫폼과 창작자의 동반성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출시 후 1억원 이상의 누적 매출을



카카오 이모티콘 출시 9주년 인포그래픽.

달성한 이모티콘은 1300개를 넘어섰으며, 누적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낸 이모티콘 시리즈는 73개에 이른다.

◆루피, 펭수 등 캐릭터 IP부터 장삿꾸, 우왁굳 등 인플루언서 이모티콘 상품들 인기

올 한해 역시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인기를 끌며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옴팡이', '오늘의 짬', '바둑이' 등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상품과 함께, '다가 타당해', '치즈덕', '한국인

이 자주 보내는 멘트', '떼쟁이', '러블리짤' '뽀시래기 자근콩' 상품이 새롭게 주목받은 이모티콘으로 선정됐다.

◆선물 비중 40%로 이용자 구매 트렌드 변화도 눈길

이모티콘 구매 목적이 직접 사용에서 선물로 다변화되는 이색 트렌드도 눈길을 끈다. 월평균 이모티콘 선물 비중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늘며 올해 약 40%를 기록했다.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선물하는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연령대 별 선물하는 상품 특색도 각양각색이다. 10대는 구매자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 20대는 가족이나 연인 등과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형 이모티콘이 선물로 인기를 끌었으며 40대 이상은 자녀에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 구매와 기부가 동시에 가능한 기부티콘 상품 등을 주로 선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넷마블, 자체 IP로 모바일 게임 '파죽지세'

'세븐나이츠2' 출시 6시간만에 1위

넷마블이 '세븐나이츠', 'A3: 스틸얼라이브', '마구마구 2020' 등 자체 지식재산권(IP)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4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 18일 출시한 모바일 수집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세븐나이츠2'가 출시 6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다.

구글 플레이는 출시 3일만인 지난 21일 2위를 기록했고 23일 현재도 순위를 유지하며 최상위권 안착에 성공했다.

세븐나이츠2는 '넷마블의 대표 IP' 세븐나이츠의 정통 후속작이다. 캐릭터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 전투와 국내외 이용자에게 호응을 얻은 스토리, 화려한 연출 등 전작의 특징점을 발전시켰다.

지난 5일에는 세븐나이츠 IP를 기반



'세븐나이츠2' 대표 이미지. /넷마블

으로 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 '세븐나이츠-타임원더러(Time Wanderer)'를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세븐나이츠는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어 세븐나이츠2 등 IP 활용 라인업이 해외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IP 외에도 올해 'A3', '마구마구' 등 자체 IP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약점으로 지적돼왔던 자체 인기 IP 부재 논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이다.

/김나인 기자

세라젠, KT와 新 홈 헬스케어 시대 선도

세라젠이 KT와 고객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전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 결합을 통한 새로운 홈 헬스케어 시대를 열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최근 KT 광화문 사옥에서 논의를 통해 ▲각사 기술 제휴 ▲세라젠 스마트 오프라인 매장 추진 ▲결합 상품 개발 및 유통 채널 공유 ▲헬스케어 원격상담 솔루션 등 다양한 제휴 활

동들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KT의 가상현실(VR) 통신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세라젠 헬스케어 제품 제조 기술을 결합한 고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에 돌입한다. KT 기술을 통한 스마트 매장 운영도 계획 중이다. 세라젠 렌탈 및 KT 통신 상품을 활용한 결합 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공유도 계획 중이다.

그 밖에 향후 영상통화를 통해 고객과 힐링 컨설팅(HC)가 비대면 방식



(왼쪽부터) 세라젠 이경수 전라사업총괄과 KT 민혜병 기업사업전략본부장이 최근 KT 광화문 사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라젠

으로 원격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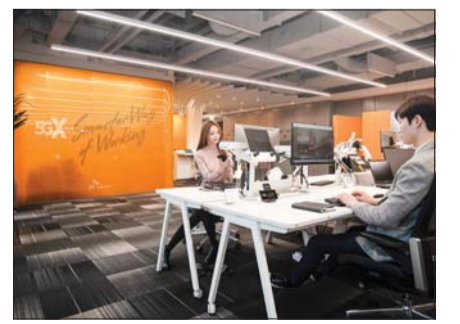
자유로운 근무... SKT,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5개 지역에 '거점 오피스' 구축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디지털 워크'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SK텔레콤이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뽑혔다.

SKT는 24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 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는 SKT를 포함해 SK이노베이션 등 총 23곳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SKT는 전 직원이 집, 회사, 거점 오피스 등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워크애니웨어'를



워크애니웨어' 문화에 맞춰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SK텔레콤

추진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T는 올해 을지로·종로·서대문·분당·관교 등 5개 지역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했다.

/김나인 기자



IBK-항균카드, 너만 있으면 안심!

카드 앞·뒷면
항균필름 코팅

항균성 99.9%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국민 안심 카드 DailyWith 데일리워드

DailyWith 데일리워드 ·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 Mastercard / UnionPay 1만2천원, BC(국내전용) 1만원

건강지킴이 · 항균성 99.9%,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생활도우미 · 1% 캐시백(6대 생활영역), 최다 사용 생활영역 1% 추가 캐시백
6대 생활영역 : 음식점(커피), 온라인쇼핑, 마트(편의점), 대중교통(주유), 통신비, 병원비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시, 혜택 제공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2b-07760호(2020.08.2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40호(2020.08.12) 게시기한: 2023.08.1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신규출시(2020.08.24)이후 3년 이상 축소되지 않아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경영위기, 전체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개별고지 방법: 카드대금장부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하나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현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민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6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LG전자, 국제백신연구소와 콜레라 퇴치 앞장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콜레라 백신 접종 및 예방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IVI 제롬 김 사무총장,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전무, IVI한국위원회 박상철 회장이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3년간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에티오피아에 콜레라 퇴치를 위한 백신 무료접종 및 질병예방에 나선다. /LG전자

KST일렉트릭, '마이브' 물류사업 공급 확대 (초소형 전기차)

전용 배터리팩 장착 냉온장고 탑재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가 냉온장고를 달고 물류 작전에 투입된다.

KST일렉트릭은 최근 본격적으로 '라스트마일' 물류사업에 공급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라스트마일은 최종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을 뜻하는 말로, 물류업계에서는 중간 기착지에서 배달까지 운송하는 단계를 칭한다.

마이브는 배터리와 BMS, 모터와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35% 끌어올리고 주행 성능까지 개선한 초소형 전기차다.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초소형 전기차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배달용 냉온장고를 개발, 최근 전라남도 영광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냉온장고 모델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냉온장고 별도 전용 배터리팩을 장착해 주행 성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4kWh로 섭씨 7도에서 2시간 유지 가능하다.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이름은 'D-박스'다. 시험 주행을 통해 냉장과 보온 성능을 극대화하는 최종 튜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 단말기와 무선 통신으로 차량 상태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정비 정보 제공, 차량진단장치를 이용한 위치 관제까지 가능케 했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에서 서류차 서비스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상황, KST일렉트릭은 D-박스 보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마이브 출고 차량 20% 가량이 배달업 종사자라는 설명이다. 실증사업으로 개발한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함께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박세리 광고 2편 1500만뷰 돌파

자연스러운 일상에 시청자 호응

LG전자가 '골프 여제' 박세리와 함께 '국가대표' 이미지를 확고히했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광고 영상 '금성에서 온 세리언니'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리빌리지 습격편'과 '왕언니의 1인분 쿡방편' 2편으로, 공개 4일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서고, 2주만에 1500만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100만 조회수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영상은 박세리 선수의 당당한 일상과 LG가전을 함께 담았다. 박세리 선수 집을 찾아가 LG전자 가전을 살펴보고, LG 가전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다.

세리빌리지 습격편에서 박세리 선수는 TV 마니아를 자처하며 화질이 좋고 부드럽고 선명하게 골프 스윙을 보여준다는 LG 올레드 TV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왕언니의 1인분 쿡방편에서는 디오



박세리 선수가 출연한 LG전자 광고 영상.

/LG전자

스 인덕션 전기레인지와 얼음정수기 냉장고,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등 주방 가전을 이용하며 "요리는 가전발, LG가 다했지"라는 메시지로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러운 연출에 광고가 아닌 예능처럼 시청했다며 호평을 보냈다. 최근 박세리 선수가 여러 예능에서 활약하는 상황, 털털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담겼다는 평가도 내렸다. 일부 시청자들은 '가전은 역시 LG'라는 영상 장면을 캡처해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LS그룹, 2021년 정기인사 발표

안전경영 초점... 구본혁 사장 승진

구본혁 사장 등 31명 승진
DT 등 R&D분야 인재 중용
조직안정 통해 미래준비 박차

LS그룹이 3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하며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외부 영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추진했다.

LS그룹은 2021년 1월 1일자로 31명 임원에 대한 인사를 24일 발표했다.

LS그룹은 내년에도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을 대비해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미래 준비와 해외사업 및 R&D 인재 승진을 지속했다.

LS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조직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사업과 디지털전환(DT) 등 R&D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구본혁 에스코홀딩스 부사장은 다시 사장 승진 인사를 받으며 3세 경영에 맨 앞에 섰다. 지난해 승진 인사를 받았지만 열흘만에 경영 수업을 이유로 자진 퇴진했던 상황. 1년만에 다시 승진 부름을 받았다.

구 신임 사장은 고(故) 구자명 LS니



구본혁
에스코홀딩스 사장



구본규
LS엘트론 부사장



정창시
에스코 신임 CEO



구동휘
E1 신임 COO

고동제련 회장 장남이다. 2003년 LS전선에 입사해 LS지주사 경영기획팀과 LS니고동제련 지원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에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20년 가까이 묵묵히 경영 수업을 받았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규 LS엘트론 부사장으로 CEO로 올라왔다. 구 신임 CEO는 구자영 LS전선 회장 장남으로, 2007년 LS전선에 입사해 슈페리어 에시스(SPSX) 통신 영업 차장과 LS일렉트릭 자동차 아시아퍼시픽 영업팀장, LS엘트론 경영관리 COO 등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워왔다.

구동휘 LS전무도 E1 COO로 승진 인사를 받았다. 구 COO는 구자영 LS그룹 회장의 아들로, 2012년 우리투자증권에 입사했다가 2013년 LS일렉트

릭 경영전략실 차장으로 이동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산업자동차 사업부장과 ㈜LS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 등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에스코 정창시 전무도 에스코 CEO로 승진해 회사 경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정 CEO는 1985년 극동도시가스에 입사해 에스코 경영지원부장과 에너지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대표이사 등을 거친 베테랑 임원이다. 도시가스 사업 고객 서비스와 안전 등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임원 인사에서는 해외사업과 R&D 분야 비중을 늘려 해외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전장 계열사인 LS오토모티브에는 현상영 상무 HKMC 영업부장과 이용욱 상무 SW개발센터장(연구위원)을 영입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아車, 구독형 서비스 '기아플렉스' 리뉴얼

포티투닷 구독 서비스 플랫폼 적용
4세대 카니발 등 차종 추가

기아자동차가 구독형 서비스를 본격 론칭했다. 기아차는 기아플렉스를 리뉴얼 출시하고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아플렉스는 차량 임대와 보험 보증금이나 차량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 없이 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기아차 최초의 구독형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운행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 론칭하게 됐다.



기아플렉스.

/기아자동차

이번 리뉴얼은 지난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스타트업 포티투닷의 차량 호출과 공유, 구독 통합 서비스 플랫폼 유모스도 적용

했다.

대상 차량은 기존 K9과 스티어, 모하비와 니로·쏘울 전기차를 비롯해 4세대 카니발과 스티어 마이스터,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을 추가했다.

서비스 지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확대했다. 신규 서비스로는 방문 세차 '인스타워시' 할인권과 주차대행 서비스 '잇차' 할인권 등을 마련했다. 카니발 익스피리언스 서비스 이용시 캐리어 전문 업체 톨레카 캐리어도 추가 대여한다. /김재용 기자

LS전선, 오스테드사에 해저케이블 공급

5년간 해저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

LS전선이 덴마크 오스테드사에 5년간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우선 공급하게 됐다.

LS전선은 세계 1위 해상풍력개발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5년간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LS전선은 오스테드와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 혼시 및 대만 장화현 해상풍력단지 등의 케이블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게 돼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바우센바인 오스테드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은 "해상풍력 시장은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LS전선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케이블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포스코에너지

일하는 문화 혁신기업 대상

포스코에너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민간발전사 최초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대치동 SE-TEC 컨벤션홀에서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 수상한 포스코에너지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일터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수지 기자

극심한 전세난에 ‘합리적 가격’ 분상제 적용 단지 주목

〈분양가 상한제〉

청약통장 가입자수 2695만여명
매매가 급상승에 청약수요 증가

고덕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등
분상제 적용 신규 분양단지 관심
저렴한 시세에 시세차익도 기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신규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실)	전용면적(㎡)	건설사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 센트럴	894	99~152	금성백조
경기 화성시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556	84	시티건설
서울시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09	84·101	현대건설 계룡건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세 대란에 지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로 전환,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95만2542명으로 지난 9월(2681만

2857명) 대비 약 14만명이 늘었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순위 아파트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세종시가 153.3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극심한 전세

난과 이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약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당첨될 경우 합리적인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단지로 금성백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RC 블록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 센트럴’ 99~152㎡, 894가구를 분양 중

이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청약경쟁률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인근에는 서대구역~달성군청~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테크노폴리스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테크노폴리스역에서 서대구역이 있는 대구시내까지 20분 대로 이동할 수 있다.

시티건설은 이달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 B-14블록에서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84㎡ 556가구를 분양한다. 남양뉴타운은 화성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택지지구다. 남양뉴타운 내에서만 4번째 공급하는 시티프라디움 단지다. 인근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정역’이 오는 2022년 신설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은 오는 12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4·101㎡, 809가구를 분양한다. 고덕강일지구의 상업시설과 유치원, 공공청사,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강동 경희대 병원, 이마트, 코스트코, 스타필드 하남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다.

GS건설도 12월 중 경기 성남시 성남 고등지구내 주상복합 C-1, C-2, C-3 블록에서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60~84㎡ 350가구와 오피스텔 59~84㎡ 282실 등 632가구를 분양한다.

동부건설도 같은 달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을 재건축하는 ‘역촌1구역 동부센트레빌(가칭)’ 59~84㎡, 총 752가구 중 378가구를 일반분양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흑석9구역 재개발, 내달 신임 집행부 선출

11구역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대우건설 vs 코오롱글로벌 2파전

서울 동작구 흑석9·11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흑석9구역 조합은 다음 달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며 흑석11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4일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국공유지매입 계약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국공유지매입 계약은 30일 예정됐다. 다음 달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흑석9구역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뒤 내용을 겪었다. 32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매입 계약 체결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자 사업 지연과 조합원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임시 총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흑석9구역 한 조합원은 “해임 총회 이후 그동안 진행되는 사항이 없었고, 이달 말까지 국공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감정 등을 통해 비용 상



서울 동작구 흑석 9·11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흑석9구역 동네 전경. /정연우 기자

승이 예상돼 걱정이 많았으나 이제라도 진행이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조합 업무를 맡고 있는 소정혜 직무대행은 “그동안 국공유지매입 계약을 위해 현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계약을 위해 현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계약금 문제를 구청과 협의 중에 있었다”며 “협의된 내용을 포함해 이번 총회를 통해서 국공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연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 직무대행은 이어 최근 불거진 26일 예정된 직무대행 직책 해임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공유지 매입 계약과 신임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해임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그의 주장

이다. 한편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의 수주전은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2파전 양상으로 압축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비롯해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 총 10개사가 참여했지만 입찰제안서는 2곳이 제출했다.

흑석11재개발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다음달 12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같은달 22일에는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레버리지 투자자 사전교육 수수료 의무화

금융투자교육원, 온라인 교육 오픈
기존 투자자도 올해 말까지 수수료해

앞으로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8일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인버스2X ETF·ETN 포함)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 투자자도 올해 말까지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미수료 시 내년 1월 4일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단,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붉은색 동그라미를 클릭해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를 수강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 등은 제외된다. 금융투자교육원 관계자는 24일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되어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하면 된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신박하게 사는 36가지’ 발간

생애설계·노후준비 문제 분석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100세 시대를 신박하게 살아가는 36가지 방법(단행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적은 2018년 발간했던 ‘100세 쇼크’의 후속작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애설계 및 노후준비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과거에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모습



에 대한 인식 등 최근 100세 시대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 기준에 맞춰 독자들과의 연령대 및 자산현황 등에 적합한 자

산관리나 노후준비에 대한 전략을 제안한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앞서 발간했던 ‘100세 쇼크’는 방대한 내용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이번 서적은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만들었다”며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연구활동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유안타증권 ‘팬아시아 로이터 티레이더’ 오픈

대만·베트남 등 2개국 확대

유안타증권이 기존 서비스 중인 미국 주식 자동 종목검색서비스 ‘로이터 티레이더’의 서비스 영역을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한 ‘팬아시아(Pan-Asia) 로이터 티레이더’를 오픈했다.

지난 5월 선제적으로 출시한 미국주식 전용 ‘로이터 티레이더’는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Refinitiv·옛 톰슨로이터)가 제공하는 퀀트스코어와 유안타증권 티레이더의 자체 알고리즘 매매타이밍 신호를 결합한 화면이다. 국내 최초로 유안타증권이 레피니티브와 데이터 제휴를 통해 탄생했다.

‘로이터 티레이더’로 개별종목들의 정량분석 스코어 및 종합 평균 스코어가 높고, 동시에 티레이더 신호가 당일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로 전환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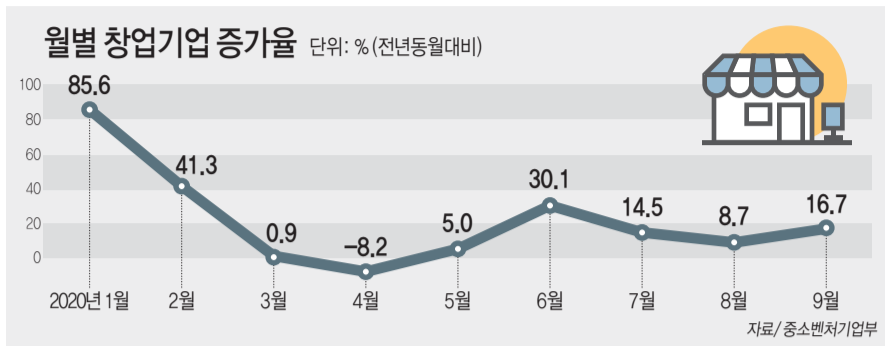


들을 별도 조건 설정 없이 선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장벽, 언어장벽, 시차 등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의 장애물을 숫자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번 아시아 버전인 ‘팬아시아 로이터 티레이더’는 기존 미국시장을 포함해 대만, 베트남 및 중국까지 아시아 3개 국가로 확대해 총 4개 국가 10개 시장까지 서비스한다. /박미경 기자

코로나도 못 막은 창업 열정... 청년층·비대면 창업 급증

3분기 창업 전년동기비 13.3% ↑
디지털·온라인분야 지속 증가세
전자상거래 소매업 71.7% 늘어
오프라인 위주 숙박업 등은 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도 국내 창업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디지털·온라인 분야 업종의 증가가 지속되며 창업 증가율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늘어 눈길을 모은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3128개로 전년동기대비 13.3% 늘었다.

지난 8월 중기부가 발표한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서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도 80만9599개로 전년보다 16만

7111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보다 26.0%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진 4월을 제외하고는 국내 창업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보통신업의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그 밖에 연

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창업도 늘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도소매업은 정보통신업의 증가에 힘입어 온라인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71.7%로 정말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년동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26.8%인 점과 비교하면 44.9% 늘어난

수치다.

이어 박영선 장관은 "정보통신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래밍과 같은 분야에서도 25.0% 증가했다"며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창업은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8.8% 감소했던 제조업 창업이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다.

박영선 장관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프라인 사업장 위주의 숙박·음식점업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도 부

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 3분기 기준 창업은 같은 기간 2.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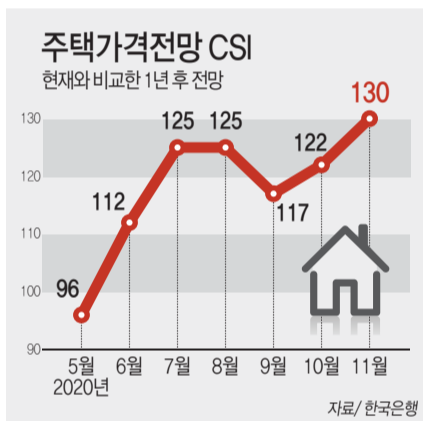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19.0% 증가해 전체 창업의 증가를 견인했다. 그중에서도 30세 미만의 창업이 29.9%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의 창업도 활발했다. 3분기 60세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창업률이 1~9월 기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30세 미만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업 등 디지털 비대면 분야의 창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집값 더 오른다... 주택값전망지수 사상 최고

한은, 11월 소비자동향조사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 유지
소비자심리지수 97.9 집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집값이 더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전월(122) 대비 8포인트나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동향조사의 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한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경우 100보다 크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대안이 많았다는 얘기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96에서 6월 112로 큰 폭으로 뛰었으며, 7월 125에 이어 이달 130으로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7~8월 이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전셋값이 올랐고, 서울은 약간 오른세가 둔화했지만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계자는 "향후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늘면서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실제로 추가 상승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

보다 6.3포인트 오른 97.9로 집계됐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한다.

CCS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9월 79.4까지 하락했다가 10월 91.6으로 크게 반등했다.

이달까지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안정적일 당시 진행된 조사인만큼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기간은 10~16일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19일 이전이다.

구성 지수별로는 현재경기판단(72)이 14포인트 올랐으며 ▲향후경기전망(91) +8포인트 ▲소비지출전망(104) +4포인트 ▲생활형편전망(94) +3포인트 ▲현재생활형편(89) +3포인트 ▲가계수입전망(96) +2포인트 등 모두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채권 전문가 "한은, 기준금리 동결할 것"

금투협, 관련 종사자 설문조사
12월 채권시장지표 소폭 하락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는 한국은행이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현 금리수준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17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조사해 '2020년 12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 달 전보다 8.8포인트 하락한 91.3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대선 이후 미국 경기 부양책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12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기준금리 BMSI가 98로 전월(100)과 보합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응답자 98.0%는 11월 한국은행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0%는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전망 BMSI는 전월보다 6.0포인트 하락한 88.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 재정·통화정책 확대 가능성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 압력에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시장 변동에 연동된 모습을 보인다"며 "12월 국내 채권시장은 금리상승을 전망한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62.0%가 금리보합에 응대해 전월(72.0%)대비 10.0%포인트 하락했고,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은 25.0%로 전월(17.0%)대비 8.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BMSI는 전월보다 14.0포인트 하락한 80.0으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곡물가격 상승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29.0%가 물가상승에 응대해 전월(17.0%)대비 12.0%포인트 상승했고, 물가보합 응답자 비율은 62.0%로 전월(72.0%)대비 10.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 기자

'영끌·빚투'에 3분기 가계빚 또 신기록

한은 가계신용잔액 1682.1조 집계
기타대출 석달 간 22조 넘게 늘어

3분기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쭉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다.

특히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의 경우 3분기 석 달 동안 22조원 넘게 늘어 작년 연중 증가치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말한다.

3분기 중 증가규모는 무려 44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분기 25조8000억원, 전년 동기 15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 4분기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주택매매, 전세거래가 활발했다"며 "다만 2016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원으로 3분기에만 39조5000억원이 늘었다. 역시 증가폭으로 보면 2016년 4분기(41조2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이 695조2000억원으로 3분기에 22조1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로 작년 한해 동안 증가규모인 23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9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보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안상미기자

**IT'S PERFECT.
NOW MAKE IT BETTER.**



 **Columbia**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kr



네이버, 사업자-창작자 연결 강화에 2년간 1800억 투입

한성숙 대표 커넥트 기자간담회

판매자-지식iN 전문가 연결
'Expert for SME' 내년부터 시행

내년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 마련
쇼핑라이브 기술 고도화 추진

네이버가 플랫폼 기술력을 통해 중소기업(SME)과 창작자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ME와 창작자 지원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등에 2년간 1800억원을 투입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기반의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 구축해 창작자와 브랜드 간 연결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4일 '커넥트 2021'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에서는 480만 SME와 160만 창작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작은 규모로 사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발견하고 협업하기 어렵다"며 "네이버의 검색, AI 추천, 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이들의 비즈니스와 창작 활동을 연결하면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4일 '커넥트 2021'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네이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E와 창작자 연결고리 강화

이를 위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와 1000여명의 지식iN 엑스퍼트 전문가를 서로 연결하는 '엑스퍼트 포 SME'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해외지구 사업을 하는 판매자는 관세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장을 병행하는 판매자는 노무사, 세무사 등과 보다 빠르게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는 창작자와 브랜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연결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 활동 현황, 최신 콘텐츠 등의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마케팅 콘셉트나 특성에 따른 브랜드와 창작자가 서로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라이브' 기술도 고도화한다. 쇼핑라이브는 8월 대비 참

여자수가 120%, 거래규모는 150% 상승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중심으로 SME의 빠른 자금 회전 돕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최근 타 이커머스 플랫폼 대비 평균 4일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빠른정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파이낸셜은 12월 초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서비스도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 높이는 성장 프로그램 지원

많은 SME와 창작자가 네이버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거 늘린다. 네이버는 비대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사업자 성공사례 공유 및 데이터 분석, 광고 전략 설계 등 프리미엄 컨설팅 과정도 별도로 구축한다.

또한 파트너스퀘어를 중심으로 커머스, 파이낸셜, 클라우드, 광고 컨설팅 등 SME와 창작자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진, 개발자 및 교육 플랫폼 기획자를 적극 양성하며,

이들로 구성된 전담 교육 센터를 구축한다.

네이버는 2017년부터 사내 '분수펀드'를 통해 SME와 창작자 성장에 속도와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SME의 사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스타트제로 수수료'(매출 성장률 165배 증가), '성장 지원 포인트'(매출성장률 72배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한성숙 대표는 "SME와 창작자를 위한 데이터 기반 성장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2년간 180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SME가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스톱자이언츠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내년은 일본에서의 경영 통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마무리되면, SME도 더 큰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겠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가격인하... 한정판... 증정품 제공

유니클로, 실적 위기에 고객감사 행보

8년째 '마음나눔 감사제' 진행
베스트 셀러 제품 특별가격 판매
일부 매장선 지역 특산품 제공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으로 한국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일본 브랜드 중 하나인 유니클로(UNIQLO)가 '노재팬'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유니클로가 한국 고객 유입과 '노재팬' 관련성 희석을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다. 유니클로 홍보·마케팅 전략은 가격 대폭 인하, 일부 제품 고급화, 지역 특산물 증정이다.

유니클로는 올해 실적 위기 속에서도 '마음나눔 감사제'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마음나눔 감사제는 1탄(13일~19일)과 2탄(20일~26일)으로 나누어 2주 동안 전국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진행중이다. 베스트 셀러 제품을 특별 가격으로 판매한다.

겨울철 남녀 '히트텍 엑스트라 워밍 크루넥T', 유니클로의 스테디셀러 남성용 '후리스 풀짚 재킷', '뽀글이'로 불리는 '플러피안 후리스 풀짚 재킷'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유니클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질 샌더와 손잡고 '+J(플러스제이)' 컬렉션을 출시해 완판시킨 바 있다. 이는 해당 디자이너의 하이엔드 브랜드 '질 샌더'와 비슷한 품질의 의류를 저렴한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1인당 한 장씩만 구매 가능했던 이



지난 23일 오후 찾은 유니클로 롯데월드몰점의 모습. (왼쪽부터) 기간 한정 가격 전광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

/원은미 기자



유니클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마음나눔 감사제 1탄을 진행했다.

컬렉션제품은 온라인몰에서 금세 품절됐다. 이후 구매를 원하는 이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몰려 명동중앙점에는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오픈런(물건을 사려고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것)현상이 목격됐다.

지역 특산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지난 4월 부산 삼정타워 지점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에 상관 없이 지역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를 제공했다.

지난 7년간 유니클로가 행사 기간 7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 브랜드 담요, 텀블러 등을 증정한 것과 비교하면, 반일 감정을 해소하고 현장서 지역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국내 특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니클로의 이같은 다각화 전략은 주가 반등 등 실질적인 매출 및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휴테크, '빅스마일데이' 안마의자 분야 1위

지마켓·옥션 합산 800대 판매

휴테크산업이 이베이코리아의 '빅스마일데이'에서 안마의자 분야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휴테크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베이코리아의 '빅스마일데이'에서 지마켓과 옥션 합산 기준 안마의자 800여 대와 소형 안마기 100여 대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컴포어, 르네 안마의자가 각각 매출 1, 2위를 차지했다.

한편 휴테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을 진행한다.



휴테크, 컴포어 안마의자 제품 이미지.

/휴테크산업

오는 25일, 27일 이어지는 2차, 3차 방송에서 ▲카이 RE7 ▲컴포어 ▲르네 안마의자를 무상 수리 최장 36개월과 최대 38%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쿠쿠, 끓는 물 정수기 CJ 오쇼핑서 론칭

업계 최초 100℃ 끓는 물 출시

쿠쿠홈시스가 오는 25일 'CJ 오쇼핑' 방송을 통해 '인앤아웃 100℃ 끓는 물 정수기(모델명: CP-TS100S/DS·사진)'를 TV 홈쇼핑 최초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인앤아웃 100℃ 끓는 물 정수기'는 업계 최초로 100℃ C 끓는 물이 출수되는 혁신 기술을 도입해 끓는 물이 필요한 각종 음료 및 간편식품 등을 조리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5일 19시 35분부터 시작되는 CJ 오쇼핑 론칭 방송에서 쿠쿠는 끓는 물 정수기의 다양한 특징을 소개하고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방송 중 제품 렌탈을 체결한 고객에게 6개월 임대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커피 드립 세트와 1구 인덕션 레인지 중 고객이 선택한 제품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방송 중 상담 예약을 접수한 모든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방송으로 소개한 끓는 물 정수기도 경품으로 선물한다.

그 밖에도 CJ 오쇼핑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백지연 기자

‘공수처’ 갈등에 등 돌린 與野... 공수처장 추천위 재개

박병석 의장 “논의 재개” 요청
오늘 국회서 4차회의 개의
與, 연내 출범 목표로 총력전
국민의 힘, ‘보이콧 불사’ 입장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 보이콧’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당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4일 “국회의장의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

에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 삭제에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 속도

를 수밖에 없다.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

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든지, 정치의 실종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차원에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과 3일, 9일 본회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체계화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과 맞물려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조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FTA 정부조달 협상 모색 산업부, 화상 간담회 개최

통상자원부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과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제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FTA 정부조달 협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는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조달 시장 확대와 개방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비료공장과 LNG 액화공장 건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추진하고, 파라과이는 건설·전력·의료 시설 확충 등 신규 사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인프라 관련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전자조달 포털 구축을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남미 시장 입찰 정보 부족,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진출 장애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중남미 조달시장 장벽 해소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산화탄소 포집해 자원으로 재활용 한다

정부, ‘CCU 로드맵’ 발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투이미지

정부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고 이를 포집해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 수립에는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합동 CCU 로드맵’

을 발표할 계획이다. CCU 기술은 산업시설,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자원화하거나 유용

한 물질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인간 생활에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CCU 로드맵을 크게 ▲CO₂ 포집 ▲CO₂ 활용 ▲CCU 산업전력 ▲CCU 정책·제도 4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성과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CCU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과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로드맵을 토대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CCU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채윤정 SI 전문기자 echo@

쌀 수급 안정위해 정부양곡 37만톤 푼다 한전KDN, ‘정부 혁신 박람회’ 참가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며, 긴장과 연이은 태풍 등으로 전년(374만톤)보다 23만톤(-6.4%), 예상 생산량(363만톤)보다는 12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약 27만톤 감소한 걸 감안하

면, 평년 대비 감소 비율은 통계청 예상의 2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한다. 보통 12월 말까지가 농가 출하 시점임을 감안하면 1월 중 첫 정부양곡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KDN이 오는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혁신 성과를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가치, 디지털 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한전KDN은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AR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솔루션’을 출품했다. 한전KDN이 출품

한 혁신사례는 증강현실(AR)과 자체 개발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적용한 솔루션이다. 이는 도로 밑에 매장된 지하시설물의 설비정보를 전력설비 빅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 작업자가 소지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에 표시해 준다. 일상 예방점검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

한전KDN은 이 솔루션을 올해 한전 지중송전현장 전력설비와 차세대 모바일 전력관리시스템에 적용했다.

/나주=강성대 기자 ksd1008@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지방 3개 권역 비대면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란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담 지원조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컨설팅 사업과 전담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지역별로 전라도·광주·충청도·대전·세종(11월 24일), 경북·대구·강원도(12월 1일), 부산·울산·경남(12월 3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학교 밖 24만 청소년에 손내민다... 2024년까지 44억 지원

서울시교육청, 관내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지자체 등과 '협의체' 대학생 100명 내외 모집 지원단 조직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약 44억원을 투입해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진로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으로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4 서울형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검정고시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약 44억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에 약 24만명으로 추정되며, 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 맞춤형 교육·정서·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심 교육·진로 멘토링단 조직·지원 ▲거점형 도움센터 신규 구축·운영 ▲민·관·학 협력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학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학습 멘토링을 비롯해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모의고사 ▲교재·기출문제 해설 지원 ▲학습자료 개발(연2종) ▲접수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다.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개설과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도움센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검정고시 지원(1순위) ▲진학정보 제공(3순위) ▲진로탐색체험(5순위) 등 학습과 진로 분야를 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을 위해서는 민간·대학과 연계해 희망 대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지원단을 조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56명 인력 풀(pool)에서 50명을 더 모집해 100명 이상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과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관악구와 마포구에는 거점형 도움센터(학교 밖 미래학교)를 설립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등 학습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을 위해 민·관·학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밖 학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여가부 '꿈드림' 센터 등과 연계한 검정고시 지원 시범 사업도 마련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공공기관 비수도권 인재 채용 확대해야”

부·울·경·제주 대학 총장협의회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촉구 인재 채용비율 공개 의무화 건의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24일 창원대에 따르면 총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11월 정기총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침체 현상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35%(비수도권), '혁신도시법'에서는 30%(공공기관 이전지역,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총장협의회 정책건의문은 양법을 모두 50%까지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총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11월 정기총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침체 현상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 /창원대

특히 총장협의회는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며, 적용지역 단위도 '이전지역 소재 학교출신 30%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장협의회는 관련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규범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도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11대 김대현 총장 취임예배 개최

호서대 제11대 김대현 총장 취임예배가 24일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예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무위원 등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과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순동 이사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호근 총장, 호서대 총동문회 최민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호서학원 이사회는 김 신임 총장 선임 배경에 대해 "대학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 준비 및 학사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



호서대 제11대 김대현 총장 취임예배가 24일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개최됐다. /호서대

와 한양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 보훔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 한국연극교육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배역 창조와 행동', '장면 연출과 행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박물관, '제37회 탁본전람회' 개최

창녕조씨 가문 서예 작품 전시

한신대 박물관은 오는 30일까지 학내 경삼관 4층 한신갤러리에서 한신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제37회 탁본전람회: 조선 후기 명필의 재발견⑥ -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오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람회에서는 창녕조씨 가문의 대표적인 금석문 서예 작품이 전시된다.

조계상(曹繼尙)을 파조(派祖)로 하는 창녕조씨(昌寧曹氏) 창녕부원군파는



한신대 박물관이 오는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를 개최한다. /한신대

설정(雪汀) 조문수(曹文秀)를 비롯해, 조한영(曹漢英), 조전주(曹殿周), 조하기(曹夏奇), 조명교(曹命敎), 조명채(曹命采), 조윤형(曹允亨) 등 누대에 걸쳐 조선 후기 서예사에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동아리 다솜모아 중랑천 토끼굴 벽화그리기

건국대는 중앙동아리 다솜모아가 최근 광진구 중랑천 인근 노후화된 중랑천 토끼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59명의 학생들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물놀이장', '운동 공원'을 콘셉트로 벽화를 가렸다. 건국대 사회봉사센터와 광진구청은 벽화 도안 작업 단계부터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건국대 중앙동아리 다솜모아는 총 124명의 학생들이 한국 해비타트 기관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왼쪽부터)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최기석 학사운영실장, 윤봉한 교수, 이재우 석좌교수, 강재원 대학원장, 원광디지털대 류은주 입학협력처장, 신이철 경찰학과장,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원광디지털대 김인성 대외협력팀 담당관 /원광디지털대

원광디지털대-동국대, 전문 인재양성 협약

국제정보보호 분야 협력

원광디지털대는 최근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과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우수 경찰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은 원광디지털대에서 추천하는 석사과정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은 정보

의 처리 및 보호·전달을 담당하는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정보보호학과(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와 사이버포렌식학과(사이버포렌식전공)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교수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양 기관이 협력해 국제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llure BANPO

볼드리치를 위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역, 교통, 생활, 파크 등 가장 완벽한 라이프가 열리는 강남의 중심 반포... 그곳에서도 가장 눈부신 자리에 하이엔드 주거공간 알루어 반포를 선보입니다.

알루어 반포



전매 가능

계약금 정액제

無 중도금대출 無 청약통장 無

자금조달계획서 거래계약신고 해당 없음

| 알루어 반포 프리미엄 포인트6 |

- Traffic _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 Invest _ 럭셔리 소형의 리미티드 에디션
- Infra _ 강남 중심의 센트럴 라이프
- Smart _ IoT, 특화설계 등 스마트한 주거공간
- Nature _ 격이 다른 그리너리 라이프
- Premium _ 반포 프리미엄을 잇는 서래마을 첫자리



※ VIP라운지 사전예약제 운영

02-532-0111

시영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현대아산 위탁 대신 EDI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 난치병 소아환자 위해 후원금·헌혈증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본관 앞에서 난치병 소아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임직원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헌혈증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이 김연수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NS홈쇼핑, '임금격차 해소' 행복한 기업 만들기 앞장
NS홈쇼핑은 23일 판교 사옥 대회의실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NS홈쇼핑 조항욱 공동대표이사, 도상철 공동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황창주 (㈜태영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S홈쇼핑

오비맥주 '카스 제로' 출시기념 온라인 캠페인

주노 작가와 4차례 일러스트 공개

오비맥주는 신제품 비알코올 맥주 '카스 0.0'(이하 '카스 제로') 출시를 기념해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주노(JUNO)'와 손을 잡고 12월 1일부터 '스마트 초이스 온라인 캠페인'을 선보인다.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고 저도주와 논알코올 제품을 찾는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주노의 젊고 참신한 일러스트로 표현할 예정이다. 맥주의 맛과 풍미는 즐기고 싶지만



운동 전후, 다이어트, 시험을 앞둔 상황이라면 '카스 제로'가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쿠팡, 소상공인 지원 '슈퍼서울워크' 진행

쿠팡이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쿠팡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 즉시할인을 제공하는 '슈퍼서울워크'를 진행한다. 즉시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1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슈퍼서울워크'에 해당하는 상품은 쿠팡 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의 332개 소상공인 업체의 1500여 종 상품을 모두 직접 매입했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광고 등 1억7000만원 규모의 마케팅도 지원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잇세컨즈, SNS 통해 선정한 소비자 모델 6인 공개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8SECONDS)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소비자 모델 콘테스트 #집콕모델챌린지에서 '베스트 6인'을 선정해 24일 공개했다. #집콕모델챌린지 1등을 차지한 '안성준(사진 오른쪽 첫 번째)' 등 베스트 6인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에잇세컨즈 가로수길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물산 패션

육군, 과학의 맹신이 전투본능 퇴화시키나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과학이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과학을 맹신하거나 과도하게 자랑하다가 인간으로서의 감성과 본능이 퇴보하게 된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이야기다.

이달 초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GOP 철책을 넘어 다음날 아침에야 신변이 확보된 사건이 있었다. 육군을 비롯해 군 당국이 자랑하던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신앙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일부 언론은 민간인 추정 탈북자가 체중 50kg에 잘 단련된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라고 보도하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를 접한 GOP 부대 지휘자와 지휘관들은 '책임회피 센서가동'이란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지휘자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광망으로 구성된 경계망 접촉된 반응에 의해 경보센서를 울리기 하는데 평소

에 오동작이 많았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경고음이 울릴 정도라고 한다.

익명의 장교는 "통상 경계센서가 침투를 감지하는 무게는 40kg인데 50kg의 체중의 탈북자가 3m 정도의 철책 상단을 넘어오는 것이 감지가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해당 근무자들이 평시에 감지압입이 수시로 뜨자 센서 민감도를 올려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과학화경계장비로 활용 중인 광망센서는 경계용 판광 속에 광섬유가 접촉에 따른 신호를 전달해 경계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굴곡이 심한 GOP 경계지역에서는 판광을 잡아주는 장력이 일정치 않아 오동작이 일어나기 쉽다. 더욱이 믿었던 'TO D(열상감시장비)'는 작동은 됐지만, 월척 영상을 녹화하지 못했다.

육군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과학화 훈련'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육군의 과학화훈련장(KCTC)나 9사단의 시가전 훈련교장은 규모면에서는 세계적인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부심이 과해지면 자위 또는 자해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국방TV는 지난 23일 방송과 유튜브로

'전세계가 탐내는 신형 마일즈 소대급 훈련까지 투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다. 종래 육군이 사용하던 마일즈 장비와 달리 무선 모듈화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뽐낼 수준은 아니다.

무선모듈 방식의 마일즈는 이미 미국, 영국 등 수십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육군이 사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전투장비를 벗고 마일즈 조끼를 새로입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전투장비에 센서만 장착하는 방식이라 훨씬 실전적 훈련이 가능하다.

소대급 훈련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마일즈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6mm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한 에어소프트건 훈련도 하고 있다. 국방TV는 마일즈 장비의 가시레이저로 영점을 잡는다고 자랑하지만, 배럴플러그를 사용한 공포탄 반동이 없는 영점획득은 레이저 게임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훈련 자체다. 건물진입과 창문 등에서 장비들의 비전술적 행동은 과거보다 전투본능이 퇴화된 모습이다. 과학의 맹신으로 전투본능이 거세되는 진화는 막아야 할 것이다. /captinm@metroseoul.co.kr

함께시작·생태지평·청소년마을노퍽누리...

'나눔과 꿈' 참여 40개 비영리단체 선정

삼성전자-사랑의 열매 지원사업 5년 간 247개 단체 450억 지원

'나눔과 꿈' 사업에 참여할 40개 비영리 단체가 확정됐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4일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했다.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공모를 시작해 올해를 포함해 5년간 247개 비영리단체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해 918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9월 한 달 간 58명의 교수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100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고 10월에는 개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40개 단체로 추렸다.



사업내용에 따라 '중점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눠 공모했으며, 각각 20개소가 선정됐다. '중점주제'사업은 '아동·청소년 교육·자립 지원사업'으로,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자유주제'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40개 단체는 ▲사회성이 낮은 경계선 청소년의 사회진입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해양보호 관련 청소년용 교재 제작 및 인식교육 사업을 하는 '생태지평' ▲아동·청소년이 지역 내 문화유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발굴하여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마을노퍽누리' ▲우간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호이'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한 토탈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사랑의열매 예총서 회장은 "나눔과 꿈 사업은 5년 동안 247개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며 복지분야의 대표 공모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올해 선정된 40개의 기관들과 아동·청소년 교육·자립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김승희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최종원

◆가온전선 ◇상무 승진 △박영목 전력사업본부장 ◇신규 이사 선임 △이상호 통신생산부문장

◆E1 ◇이동 △ 구동휘 전무 [現 (주)LS Value Management 부문장] e E1 COO(최고 운영책임자) △ 한상준 전무 [現 (주)LS 경영관리부문장 CFO e E1 경기기획본부장

CFO]

◆에스코홀딩스 ◇사장 승진/CEO 선임 △ 구본혁 CEO 사장 ◇신규 이사 선임 △이정철 인사홍보부부장 CHO

부음

▲이후래씨 별세, 이수영(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 팀장)·이용택·이수정·이수진씨 부친상, 박준홍·이규태씨 장인상, 강정미씨 시부모상 = 23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26일 오전 5

시 30분, 장지 국립과천호국원. ☎ 02-2225-1004

▲오옥순씨 별세, 김현충·현욱(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장)·현주씨 모친상, 신수봉(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씨 빙모상 = 23일 오후 11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특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 032-860-7010

▲윤선하 씨 별세, 윤명희(전남도의원) 씨 부친상 = 24일 오전, 전남 해남 산림조합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 061-532-4444

“다양한 상품, 더 싸게”... 이커머스, 블프 대목잡기 ‘사활’

〈블랙프라이데이〉

G마켓-옥션 30% 할인가 선포
롯데온 매일 3000명 반값쿠폰
11번가 280만개 할인상품 마련



11번가와 롯데온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각사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이커머스 업체는 앞다투어 할인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24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주요 해외직구 품목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 전 카테고리 걸쳐 크게 신장했다. 수입 명품은 310%, 주방가전과 영상가전은 각각 69%, 60% 신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주방가전이 61% 판매 신장률을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G마켓과 옥션에

서는 30일까지 ‘해외직구 블랙세일’을 실시한다. TV, 명품, 건강식품, 타이어 등을 한해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해외직구 상품을 엄선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할인쿠폰도 마련했다.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에게 ‘10% 할인쿠폰’, 일반 회원에게 ‘7%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롯데온은 오는 27일까지 시즌 인기 상품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0명에게 행사 기간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가전, 식품생활, 명품, 의류, 뷰티, 스포츠, 유아동, 홈리빙 등 8개 상품 카테고리에서 선정한 120개 상품을 구매하면 추가 카드 할인

쿠폰도 사용 가능하다. 11번가는 미국 최대 연말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직구 인기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오는 30일까지 한다. 할인 상품 수는 280만여개다. 영양제 등 건강식품부터 삼성·LG전자의 대형

TV, 몽클레어 아우터, 일리 커피머신, 스타우브 냄비, 버버리 버킷백, 메종키츠네 맨투맨, 템퍼 토퍼 등 직구족들의 수요가 꾸준한 상품들이 한정수량 특가로 나온다.

한편, 최근 몇년간 해외직구는 꾸준히 증가해 대중적인 소비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6%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구 방식은 ‘해외 구매 대행’(59.1%, 중복응답), ‘해외 직접 배송’(48.6%), ‘해외 배송 대행’(41.2%) 순이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마트에서 고객이 쌀과 잡곡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마트 “쌀도 취향 맞춰 골라드세요”

청량리점에 ‘쌀 전문매장’ 선보여
오른·새일미 등 18개 품종 마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족’이 늘어남에 따라 롯데마트가 쌀 전문 매장을 오픈했다.

2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쌀’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쌀’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8년 61.0kg에서 2019년 59.2kg으로 줄어들었다.

증가하는 쌀 수요를 고려해 롯데마트는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좋은 쌀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26일 청량리점

에 영업면적 약 66㎡(20평) 규모의 ‘쌀 전문 특화 매장’을 오픈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고시히카리, 삼광 등 기존에 운영하던 쌀 품종과 더불어 가와지1호, 오른, 새일미, 미호 등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품질이 뛰어난 18개 품종의 쌀을 새롭게 선보인다.

신규로 취급하는 품종의 쌀들은 한번에 대용량을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해 소용량(450g)으로 진공 포장 판매한다. 또한, 전문화된 즉석 도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쌀 8종과 잡곡 8종을 벌크(포장하지 않은 제품을 쌓아서 진열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쌀 8종의 경우 1kg부터 10kg까지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도정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달콤 짭조름한 ‘천마표시멘트팝콘’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시멘트 브랜드와 협업한 이색 컬래버 상품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천마표 시멘트로 유명한 성신양화와 손잡고 ‘천마표시멘트팝콘(사진)’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천마표시멘트팝콘’은 천마표시멘트 포대 디자인을 상품 패키지에 그대로 활용한 레트로 콘셉트의 상품으로 카카오 천연색소를 활용해 시멘트 느낌의 흑색 팝콘을 구현했다. ‘천마표시멘트



팝콘’은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함께 어우러진 팝콘으로 단짠의 조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종 브랜드를 넘나드는 이색 협업이 식품 및 유통업계에서 대표 차별화 출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가짜비, 편슈머를 추구하는 소비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에 따라 이러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봉지면으로 먹는다

농심, 사발면 이어 봉지면 출시
부드러운 두부, 아삭한 김치 묘미
“깊고 진한 김치찌개 맛 구현”

농심이 신제품 ‘신라면블랙 두부김치’를 24일 출시했다. 지난 8월 선보인 용기면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를 봉지면으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신라면블랙 두부김치는 신라면블랙의 깊고 진한 국물에 두부김치찌개의 맛을 접목한 제품이다.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와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를 풍성하게 넣어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의 맛을 구현했다.

농심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신만의 기호에 맞게 조리법을 바꿔서 즐기는 ‘모디슈머’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라면블랙 두부김치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한끼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농심 관계자는 “풍성한 두부와 김치 건더기, 깊고 진한 김치찌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룬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에 취향대로 재료를 더하면 푸짐하고 맛있는 김치찌개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심이 앞서 출시한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 신라면블랙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두부김치찌개의 만남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G마켓, 스마일클럽 전용 ‘車리스 상품’

“업계 최저가 수준, 캐시백 등 혜택”

G마켓이 ‘스마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리스 상품을 내놓는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은 12월 31일까지 스마일클럽 전용 ‘자동차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별

우대 기획전인 만큼 업계 최저가 수준에, 빠른 배송을 보장한다. 캐시백 등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인기 국산브랜드 차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용 기간은 48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월납입료는 기존 자동차 금융상품 대비 저렴하다. 배송도 빠르다. 인기 차종의 경우 한정수량으로

2~3일 내에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최대 1개월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자동차 가격의 0.9%를 G마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캐시’로 돌려준다. 자동차 리스 계약 후 3주 이내 이베이코리아 상담원이 캐시백 계정을 확인한 뒤 계약 유지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일캐시를 지급한다. 차종 별 최대 62만 원까지 적립된다.

/신원선 기자

GS25, 스팸 활용 ‘프레시푸드 4종’

GS25가 스팸을 주 재료로 활용한 도시락, 김밥 등 프레시푸드 4종을 ‘스팸 매일함’ 시리즈로 기획해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스팸매일함 시리즈는 스팸을 매일 즐

기다라는 의미의 ‘스팸 매일’과 불필요한 전자 메일을 의미하는 ‘스팸 매일’ 등의 표현이 중의적으로 사용된 상품명이다.



모델이 GS25가 스팸매일함 시리즈로 출시한 프레시푸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GS25

/신원선 기자

롯데월드몰, 편집 존 '3355' 오픈... 맛집·문화공간 결합

기존 마트매장에 여가·취미 결합
맛집 포함 16개 브랜드로 구성
드로잉 카페, 쿠킹 클래스 등 운영



롯데월드몰 3355

/롯데자산개발

롯데월드몰이 새로운 콘셉트 공간을 선보이며 MZ세대 사로잡기에 나선다. 롯데월드몰은 24일 지하 1층에 약 2500㎡(750평) 규모로 '3355'를 오픈한다. 기존 마트 매장을 식사와 디저트, 나아가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3355'는 디저트·글로벌 맛집을 포함해 클래스·취미 등 총 16개 브랜드로 구성되는 편집 존이다. 롯데월드몰은 SNS에 친숙한 MZ세대를 겨냥해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 강자로 소문난 매장을 '3355'에 총망라한다. 을지로에 본점이 있는 디저트 카페

▲'분카샤'는 빵 사이에 딸기, 키위 등을 넣은 후르츠산도를 선보인다. 후르츠산도는 맛뿐만 아니라 사진을 부르는 비주얼로 고객들의 시선을 끈다. 말차 전문 ▲'슈퍼말차'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한 매장이

다. 국내산 보성 말차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달콤함을 추구한다. 말차 라떼, 차이·코코넛 말차 등 음료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해외를 가지 못하는 식객들을 위로할 글로벌 레스토랑들이

'3355'에 대해 상륙한다. 동남아 음식, 멕시칸, 중식 등 글로벌 푸드는 물론 하와이 샐러드 등 건강식을 다채롭게 갖춘다. 한국의 치폴레(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로 불리는 캐주얼 멕시칸 푸드 전문점 ▲'이터스'와 베트남 요리를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츄츄'가 각각 분당과 을지로에서 넘어온다. 중식 4대 문과 명장 '유방녕' 셰프가 운영 중인 '신차이'의 뉴 콘셉트 레스토랑 ▲'만옥'은 1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먹거리 외에도 취미·여가를 즐기는 쉼터 같은 공간도 마련된다. 누구나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는 드로잉 카페가 문을 연다. 드로잉 카페 ▲'성수 미술관'에서는 쉽게 회화에 도전 가능하다. 스케치가 완료된 도안에 채색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를 원하는 커플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ABC 쿠킹 스튜디오'는 5층에서 '3355'로 자리를 옮겨 리뉴얼 오픈한다. 파스타 등 요리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베이커리 과정도 있어 고객들은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리뉴얼 오픈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2월까지 간단한 메뉴를 체험하는 '샘플레슨'을 50% 할인하여 1만 원에 제공 중이다. 신선함을 모토로 특색있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판매하는 ▲'프레쉬(PRESH)'는 합정에서 건너온다. 향수, 캔들, 디퓨저와 같은 센트(Scents) 제품과 티셔츠, 파우치, 에코백 등 패션 상품을 쇼핑 가능하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서식품, '맥심X유니버설 패키지' 출시

맥심 브랜드 4종에 영화 장면 담아
"소비자에 특별한 경험 제공할 것"



맥심X유니버설 스튜디오 스페셜 패키지 4종

동서식품이 콜라보 열풍에 가세해 한 정판 굿즈를 선보였다. 이러한 한정판 마케팅은 독특한 재미를 선사하며 보다 능동적인 소비 행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업계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손잡고 '쥬스', '백투더퓨처', '쥬라기공원' 등 명작 영화를 활용한 '맥심X유니버설 스페셜 패키지'를 한정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맥심X유니버설 스페셜 패키지는 '카카오프렌즈', '키티버니포니', '무민' 등에 이은 맥심 커피믹스의 네 번째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다. 개봉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무비가 지닌 레트로한 감성을 맥심 브랜드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패키지는 ▲맥심 모카골드 마일

드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맥심 모카골드 심플라떼 ▲맥심 화이트골드 등 총 4종이다. 각 커피믹스 스틱과 패키지에는 영화의 포스터와 명장면, 심볼 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일러스트를 담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커피믹스 맥심 모카골드는 동서식품의 메가히트 제품이다. 1989년 출시 이후 30여년간 '국민 커피'로 불리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맥심 모카골드가 커피믹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가장 큰 비결은 고품질 원두에 대한 고집과 50여 년 커피 제조 노하우에 기반한 동서식품의 뛰어난 기술력에 있다. 동서식품은 반세기 기술력으로 커피, 설탕, 크리머의 황금 비율은 기본이고, 콜롬비아, 온두라스,

페루 등 엄선한 고급 원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언제 어디서나 누가 타도 맛있는 맛을 만들었다. 아울러 동서식품은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매년 100건 이상의 시장조사와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맥심' 커피 브랜드는 주기적으로 맛과 향, 패키지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맥심 리스테이지'를 실천하고 있다. 서윤식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동서식품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이번 '맥심X유니버설 스페셜 패키지'처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특별한 커피 한 잔의 경험을 선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bhc, R&R 충실... 가맹점 월매출 35% ↑

(역할·책임)

시기 국한 없이 가맹점 월 매출 성장



큰맘할매순대국 수육국밥

bhc치킨을 비롯해 큰맘할매순대국, 창고43 등을 운영하는 bhc가 브랜드별 특색을 살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영역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bhc의 대표 브랜드인 bhc치킨은 지난해 본사 매출 3000억 원 돌파와 함께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본사와 가맹점의 동반성장을 이뤄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했고 올 3분기에도 가맹점 월평균 매출 35% 증가는 물론,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bhc는 가맹점은 본사 메뉴에 맞게 매장을 운영하고 가맹본부는 신메뉴 개발에 주력하는 등 가맹점과 가맹본부 본연의 역할과 책임(R&R)에 충실하는 점을 bhc치킨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본사 핵심역량과 노하우를 집결하여 큰맘할매순대국을 비롯한 다른 브랜드에 힘을 실으며 사업 다각화 및 매출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대표 순대국 프랜차이즈 큰맘할매순대국은 편의성 높은 한 끼 식사에 주목, 지난 10월 '큰맘 도시락' 인기 11종을 선보였다. 큰맘 도시락은 순대국, /조효정 기자

소고기국밥 등 큰맘할매순대국 인기 메뉴를 하나의 패키지에 담은 것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잘 차린 뜨끈한 한 끼'를 매장에서 먹던 맛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우 전문점 창고43은 차별화된 품질에 포인트를 두고 지난 9월 프리미엄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는 창고43 브랜드 특성을 살린 양념소갈비를 메인 메뉴로 한 프리미엄 도시락으로 검증된 품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문 후 조리에 들어가 신선함을 높였다. bhc는 올 여름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족발상회 1호점을 오픈하며 족발 시장에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bhc는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1년 가량 소비자 조사 및 시장 테스트를 진행하며 시제품 개발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올 하반기 오픈한 족발상회는 bhc치킨의 뿌리깊을 접목한 '뿌리족발' 등 신개념 족발과 주요 타깃인 직장인 및 2030세대를 공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효정 기자

동화약품, 코로나 치료제 2상임상 승인

(DW2008S)

중증 코로나 환자 대상 유효성 평가
천식치료제로 2상 임상시험도 계획

동화약품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DW2008S'의 2상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동화약품은 중증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DW2008S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DW2008S는 천식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연물약품으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효과

탐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동화약품은 DW2008S 이외에도 DW2008S의 단일유효성분을 이용한 비임상 연구와 신규 유도체 물질을 이용한 신약후보출 연구 2건에 대해 각각 GLP 독성시험과 신약개발 시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과제 지원 하에 수행 중이다. DW2008S는 천식치료제로 개발 당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천식치료제로서도 2상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림대병원 김동준 교수 대한간학회 회장 취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동준 교수(사진)가 대한간학회 제26차 주계학술대회에서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세경 기자

김 회장은 "앞으로 연구 활성화, 다양한 학술교류, 회원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학회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간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오설록

차문화에 각테일 결합

오설록이 차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전달할 티카테일을 선보인다고 24일 전했다. 새로 출시한 티카테일 3종은 차에 관한 오랜 역사와 품질을 자부하는 오설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차문화를 일상에 녹여 계승하려는 의지를 담아낸 결과다. 향긋한 차를 티카테일에 활용하는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해 차에 조예가 깊지 않아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조



오설록 티카테일 3종(왼쪽부터 달빛산책, 세자유자, 레드파파야 티 샹그리아). /아모레퍼시픽 한 각테일 형태의 음료다. 3가지 오설록 티카테일은 전국 오설록 티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소상공인의 단비” 새희망자금 등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20건 선별
긴급대출, 공공부문 선결제 등
중기부,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동안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통한 자금애로 해소,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및 착한 소비자 민간확산 캠페인까지 총 4건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2020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4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대출(1000만원)로 자금애로 해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 민간확산 캠페인
우수 (9건)	(동행세일) 케이(K)-세일로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구례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 현장 밀착지원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화개장터 침수피해 조기 극복
	마스크 대란해소 · 케이(K)-방역 세계화의 1등공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릴레이 라이브커머스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위해 검찰과 중기부 맞선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백년멘토의 성공노하우 방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결성
공동 확산수출상담회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극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또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

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동안 230만여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하고, 기존 20일 가량 걸리던 처리기간도 1~2일로 줄이는 등 소상공인 보

증신청도 신속히 처리했다.

이외에도 ▲법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태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중기부 운영섭 혁신행정담당관은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중기중앙회-LH

건설·건축분야 中企 재기 지원 '한뜻'

'자상한 기업' 22번째 시리즈
혁신 창업·기업 성장 촉진
'실무협업체' 구성... 지속 점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건축분야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모은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기중앙회와 '건설·건축 분야 혁신조달·창업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22번째다.

22호 자상한 기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산업 영역인 건설·건축 분야에서도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공 조달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중소기업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건설·건축 분야에 특화된 혁신 창업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탄실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재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협약에서 나온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 중소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업체'를 구성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는 "건축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건축 특화 랩업 조성과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대중기협력재단 급여일부 모아 소외계층에 기부

사무총장·본부장 등 동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임원 급여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소외계층 돕기에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김순철 사무총장과 본부장 3명이 급여 중 일부를 모아 만든 2628만원을 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지역의 기

조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전달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또 기부금의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누리상품권 형태로 해당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기부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동반성장 상생협력으로 극복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복지부장관 표창... "나눔문화 확산"

10억 넘게 기부... 지역 발전 앞장

시몬스가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4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측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오고 있다. 매년 명절에는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또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전기압력밥솥, 가스자동차단기(가스안심콕), 보행보조기(실버카), 에어컨 등 생활용품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기부한 액수만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몬스측대는 또 지역사회



Since 1870

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이천시의 대표 상생 파트너로 자리 잡아 지난해 '나눔문화 확산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8월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역대급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시몬스는 경기도 이천의 '시몬스 테라스'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한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몬스 테라스는 한국 시몬스의 측면에 대한 고민과 진정성을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소셜 스페이스(Social Space)'로 자리잡았다.

/김승호 기자

행복한백화점 21주년 기념 '행백 쇼핑제'

오늘부터 2주간 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개점 21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2주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집객 및 고객유치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독상품과 혜택을 강화한 이벤트에 집중해 기획했다.

첫 날인 2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전야제 기간에는 구매금액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20만·40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2만·3만·5만원의 행복한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5만·7만원 이상 구매 시엔 각각 치약세트와 주역의 분식그릇세트를 선물한

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메인행사 기간에는 동일브랜드 20만·40만·6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4만·6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개점 21주년 타이틀에 맞춰 21을 강조한 이벤트 '행백이가 쏜다'를 선보인다.

'행백이가 쏜다' 이벤트에선 행사기간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로봇커피머신 로보프레소와의 콜라보를 통해 2121잔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증정하고, 12월 3일 개점기념일에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211개의 떡을 제공한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으로서 전체 입점 매장의 97% 가량을 중소기업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ig | 더 큰 믿음으로

B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 Network

N



Knowhow | 시대를 리드하는 금융 노하우로

K



희망을 잇다
행복이 잇다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 BNK금융그룹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

‘50년 서울지하철 노하우’ 시드니서 달린다

서울교통공, 호주 지하철사업 수주

서부선, 서부공항라인 사업 때내 오세아니아 지역 최초 진출 의미 노선 설계·시공 등 종합 컨설팅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의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 진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드니 핵심 도시철도 노선 ‘서부선(West Line), 서부공항라인(Western Sydney Airport)’ 운영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관리까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전반을 종합 컨설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호주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리카르도레일사’와 공동 참여하며 3년 간 전체 약 70억 원 규모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사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첫 진출하는 사업이자, 도시철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 컨설팅 사업이다. 공사는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시드니의 교통

난을 해결하기 위해 1974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의 약 50년 간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공사는 앞서 2017년 이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코스타리카 등의 철도 관련 사업에 진출해 토목·설계 위주로 컨설팅한 바 있다.

시드니메트로 측은 앞서 서울지하철의 안전발판 멘치마팅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을 때 ‘서부선’ 운영컨설팅 입찰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이번 입찰 참여는 당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입찰에 참여한 곳 대부분은 기술 관련 업체였고, 공사는 유일하게 지하철 운영 경험을 40년 이상 쌓아온 운영사로서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호주리카르도레일사와 호주 시드니메트로 서부선, 서부공항라인 운영컨설팅 참여를 위한 협업계약서를 11월 중순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전문 인력을 파견해 시드니 도시철도 사업과 교통 전반 정책을 검토해 운영 방안을 수립해 운영사인 시드니메트로사에 전달하게 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드니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호주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최초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컨설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50년 간 쌓아온 서울지하철 노하우를 전달해 시드니 도시철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메트로 서부선은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가 추진 중인 호주 최대 대중교통 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다.

높은 출산율 및 이민자 유입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이다. 서부선은 시드니 외곽 주거 밀집지역과 중심 업무지구 간 약 24km를 연결하는 시드니 도시철도의 핵심 노선으로, 2020년 하반기 건설을 시작해 2030년 경 완공 및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역서 LP의 문화 가치 느껴보세요”

24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레코드 284-문화를 재생하다’ 전시가 소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은 레코드(LP)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기획됐다. 레코드의 제작에서부터 유통, 소비, 문화 창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다룸으로써, 레코드를 단순한 음악 저장 매체를 넘어 일상 속 창작의 원동력이자 영감의 매개체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 상봉·중화 재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한시적 적용

서울시는 23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 주택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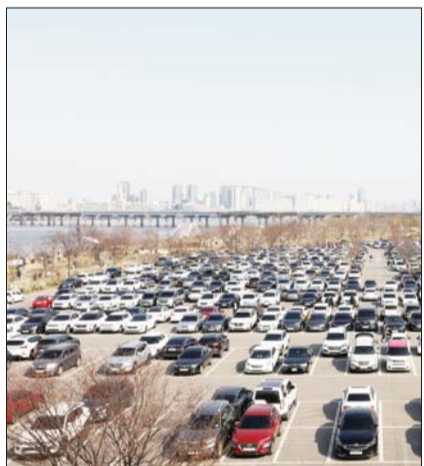
한강공원 주차요금 2초면 자동결제 ‘OK’

내년부터 ‘카카오톡 앱’ 서비스 사전결제로 무정차 출차 가능

주말이나 휴일이면 주차요금을 정산하느라 출차 시간이 지연됐던 한강공원 주차장이 새해부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장으로 바뀐다.

카카오톡 앱의 사전등록결제서비스에 결제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주차 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 결제돼 무정차로 출차할 수 있다. 출차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기존 20초에서 2초로 10배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전등록결제서비스로 무정차 출차 ▲한강공원 주차장 위치·요금정보 제공 및 길안내 ▲주차장 예상 혼잡도 및 대체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뉴스1

차장 안내다. 카카오톡 앱의 사전등록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와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한강공원 주차장 내 주차설비가 차량번호와 주차 시간을 인식해 요금을 자동 결제한다.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의 위치와 주차요금 정보, 예상 혼잡도 확인 기능도 카카오톡 앱에 추가됐다.

앱에서 ‘주차’ 탭을 선택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하고 ‘길안내’를 누르면 카카오내비로 찾아갈 수도 있다. 예상 혼잡도는 주차장의 시간대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만차 상태라면 인근의 대체 주차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11개 한강공원 모든 주차장에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는 무정차 사전등록결제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민간 주차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동광산 다차로 하이패스 완공모습.

무안·광주선 동광산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무안·광주선 동광산TG 다차로 하이패스를 오는 25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한 교통전환 및 개통을 위해 광주

방향(출구)은 오는 25일 오후 4시를 기해 개통하고, 무안방향(입구)은 26일 오후 4시에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경북,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내달 6일까지 2주동안 진행

경북도가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발맞춘 ‘2020 경북 사회적경제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행복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박람회 참가기업의 기업 정보, 채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담과 채용면접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채용

관’, 참가기업의 홍보영상과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우수사례를 담은 ‘홍보관’, 그리고 ‘이벤트관’으로 돼 있다.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이번 행복일자리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라이브쇼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행복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가 끝나면 전국 최초로 이용자 중심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하 온라인 통합플랫폼)으로 변경돼 사회적경제기업 및 구직청년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구인 구직의 창구로 활용된다.

/경북=김홍희 기자 gi213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2 | 해질 / 17:16

11월 25일 (수)
음력 :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7 ~ 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4/8 ·동두천 -3/9 ·경주 -4/8 ·서울 1/10 ·양평 -2/9 ·울산 2/9 ·평택 -1/10 ·인천 2/10 ·수원 4/9 ·파주 -4/9 ·백령도 7/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청송군 AI 가축 방역태세 강화

청송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가축 방역태세 강화에 나섰다.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특별 방역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농장 주변 생석회 살포 및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또한 농장 안으로 차량 및 사람 진입을 통제하고, 필요시 소독을 철저히 한 차량만 축사내부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2@



[종합] 블랙프라이데이 구매 체크요소는 통관·배송·세금 04



Life

[라이프] 다양하게, 더 싸게 이커머스 블프 대목잡기 사활 11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

2020년 11월 25일(수) LW컨벤션 그랜드볼룸



AI의 진화 원유 역할 '빅데이터'... 혁신의 끝은

>> 1면 '충격적 진화... AI·빅데이터'서 계속

국내에서도 올해 '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와 함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AI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사업에서 정부는 올해 AI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공개를 목표로 데이터 구축에 3473억9000만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에 1160억7000만원을 배정했고, 올해 150종의 AI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해주고 수요 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도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이 AI가 올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큰 도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AI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원유(原油)' 역할의 빅데이터 또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25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과 웨비나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뉴테크놀로지 포럼은 AI 산업의 급격한 발달 속에서 빅데이터가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향후 AI와 빅데이터의 어떻게 전개될 지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최고 권위의 학회인 세계인공지능학회(AAAI)에서 지난 2월 심사위원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응용상(IAAI Award)'을 수상하고 95년과 97년에 같은 상을 받아 '3관왕'에 오른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경희대 빅데이터연구소장)가 '인공지능 기업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례와 이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20여년의 사업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발빠르게 AI 기업으로 변신, AI 솔루션 기업 중 최초로 지난 7월 상장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AI 선두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AI 플랫폼 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핵심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프로그램 순서

시간	프로그램	
13:3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4:00 ~ 14:20	축사	이원욱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
	환영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14:20 ~ 15:00	기조강연	<인공지능 기업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례와 이론>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5:00 ~ 15:40	강연	<AI 플랫폼 서비스의 미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15:40 ~ 16:20		<KT의 AI 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가치 창출> 정영조 KT Master PM
16:20 ~ 17:00		<빅데이터시대의 인공지능 윤리>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변신을 선언한 KT의 정영조 Master PM이 'KT의 AI 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가치 창출'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지난해 4월 AI 윤리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가이드라인'을

발빠르게 내놓고, AI의 안전과 윤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전창배 이사장은 'AI 플랫폼 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기업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례와 이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AI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한국의 AI 스타트업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AI 기업은 시를 사용해 가치 있는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업으로, 데이터의 획득 전략, 가치 있는 목표 설정, 최적화 방법론, 인간과 AI의 협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AI 비즈니스의 성공전략으로 샌드버드, 휘이드, 뷰노, 수퍼빈, 비프로일레본, 수퍼빈, 베어로보틱스 등 스타트업의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 ▲경희대 경영대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 ▲미국인공지능학회(AAAI) 혁신적인인공지능 응용상 3회 수상(1995, 1997, 2020년)
- ▲CMU, MIT, UC버클리 초빙과학자·교수 역임
- ▲AI 거버넌스 코리아 대표
- ▲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역임(2017)
- ▲현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AI 플랫폼 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1세대부터 3세대 AI 기술의 특징을 통해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언어·음성·시각·예측·공간·운동·예술지능을 통한 AI 기술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AI의 현재 위치와 사업적 가치를 탐색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디지털 휴먼'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강연을 통해 다가올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기술 시장 동향을 통해 AI의 미래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 ▲총리 직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자문위원
- ▲인공지능산업협회 회장
- ▲지능정보기술협회 부회장
- ▲Open Data Institute Korea Director
-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이사
- ▲EU STI International, Board 외 다수

정영조 KT Master PM



정영조 KT Master PM은 'KT의 AI 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가치 창출'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Master PM은 'AI 컴퍼니'를 선언한 KT의 AI 관련 행보 및 전략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추이 등을 짚어본다. KT는 자사 강점인 인터넷TV(IPTV)의 강점을 살리고, 통신회사로서 보유한 음성기술의 노하우를 접목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AI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탐색해보고, 관련 사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본다.

- ▲KT 경제경영연구소 입사
- ▲KT 창의경영센터
- ▲KT Big Data Center BigData기획팀
- ▲KT 미래플랫폼사업추진실 융합전략팀
- ▲KT 통합보안사업단 통합보안기획팀장
- ▲KT BigData사업지원단 BigData기획팀장
- ▲현 KT AIBigData사업본부 Data Transformation P-TF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인공지능(AI)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근원인 빅데이터의 발달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AI의 편향성과 딥페이크 문제가 데이터로 인한 AI 윤리적 이슈의 사례인 만큼, 인공지능 윤리(AI Ethics)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내용들을 알아본다.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강연을 통해 인간과 기술의 바람직한 공존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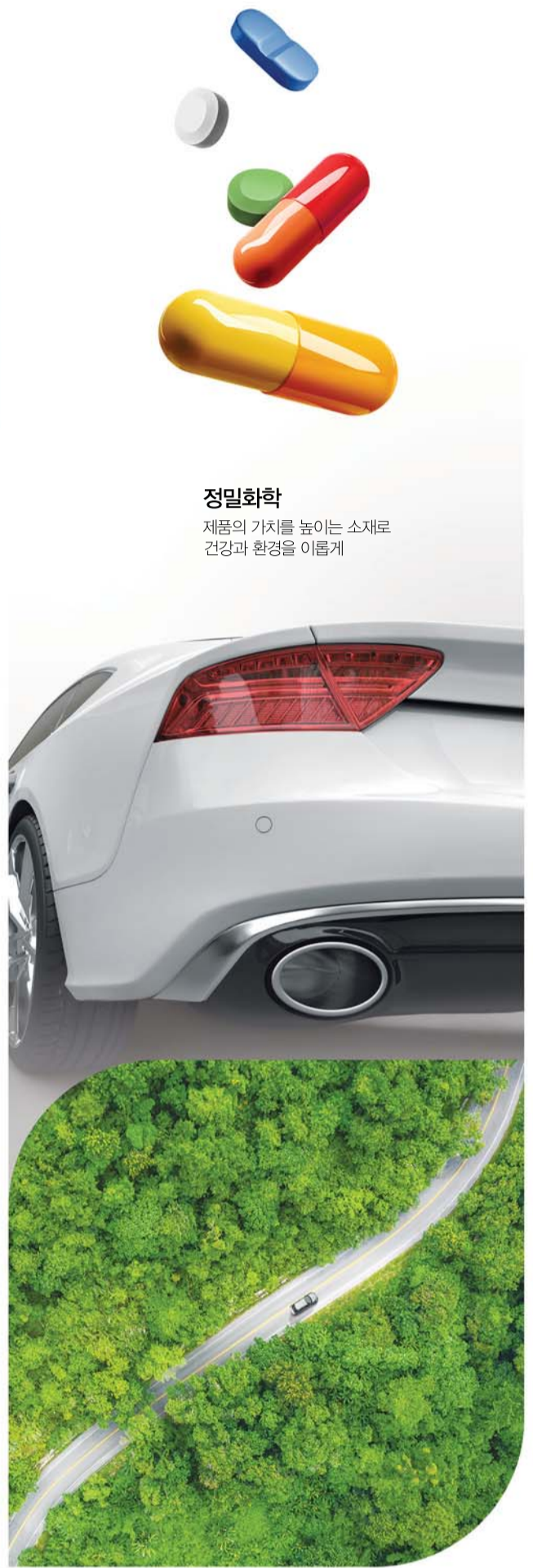
- ▲아이오넵 주식회사 대표이사
- ▲UN 글로벌 디지털 협력 보고서 자문위원
- ▲서울시 교육청 자문관
-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국정포럼 4차 산업혁명위원장



기초소재
생활 속 모든 곳에 필요한 소재로
일상을 더 풍요롭게



첨단소재
기술에 디자인을 더한 소재로
새롭고 아름답게



정밀화학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소재로
건강과 환경을 이롭게

화학으로 이로운지는 세상 롯데화학가족이 함께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더 편한 일상으로, 자연에게는 더 착한 환경으로
사람과 자연을 모두 이롭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